

高麗石造建築의 研究

— 幢竿支柱 · 石燈 · 石碑 —

金 禧 庚

머리말

韓半島에 傳來된 佛敎는 新羅의 王室中心, 護國佛敎時代를 거쳐 高麗에 이르러 國敎로 信奉되면서 그 敎勢가 더욱 旺盛하게 되었고, 大衆의 이니 土着化의 길을 걷게 된다. 이에 따라 天惠의 純白良質의 花崗岩에 着眼한 高麗人들은 佛敎의인 造營을 高麗一代를 通하여 國家的으로 또는 地方的 個人的으로 活潑히 進行하여 오늘날 많은 遺物을 남겼다. 主流을 이루었던 石塔을 잠시 두고라도 多樣하고 優秀한 石造物이 全國적으로 分布되어 우리나라 石造建築史上 가장 多彩로운 造形期를 이루었다.

本稿에서는 이들중 幢竿支柱, 石燈, 石碑에 限하여 考察을 해보고져 한다.

幢竿支柱

幢은 寺刹의 門前에 꽂는 旗幟의 一種이며, 幢竿은 幢을 꽂는 장대이고, 幢竿支柱는 幢竿을 받치기 위해 그 左右에 세운 두 기둥을 말한다. 幢은 法會간은 儀式때에 달게 되는데, 俗稱「掛佛」이라고도 하며 그 表面에는 佛畫가 그려진다. 오늘날 幢竿은, 오랜時日이 지나는 동안 倒壞

되거나 破損되어 남아있는 것이 적고, 대개 支柱만이 寺刹入口에 遺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材質로 보아 幢竿은 石製와 鐵製로 나눌 수 있는데 石造가 大部分이다. 石造幢竿은 細長한 石柱를 몇개 連結하여 세운 것인데 結構는 上下로 連接한 石柱의 兩 끝을 半씩 짝아 接着시킨다. 幢竿支柱의 基本樣式은 方形石柱를 約 1m 가량의 간격을 두고 兩쪽에 세우고, 그 안쪽에 相對하여 杆을 끼우기 위한 杆孔이나 杆溝를 파놓는다. 下部에는 竿台와 基壇部를 갖추는데, 杆溝는 內面 上端에만 파여지게 되고, 그 아래부분의 杆孔은 一, 二개 과거나 貫通되는 경우등 孔數가 一定치 않다. 高麗時代가 되면, 柱頭는 圓弧形을 이루고, 竿台와 基壇등을 具備하게 되며, 그 內面以外的 各面에는 縱線紋이 彫飾된다. 그리고 紋帶는 略化 또는 形式化되어 鈍重한 느낌이 든다. 위에서와 같이 幢竿支柱는 單純한 石柱가 아니고, 그 內面을 除外한 다른 各面에 縱線紋, 眼象 杆台의 蓮花紋 등의 優美한 彫飾를 갖춘 建築物이기도 하다.

春川 權花洞幢竿支柱 (도판 1)

江原道春川市權花洞二區 高三、五二m

高麗

春川市 昭陽江邊 특밀의 길가 原位置에 原狀대로 兩支柱가 東西로 마주 서 있다. 마주 보는 內側面과 外面, 前後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各邊의 角을 죽여 약간의 裝飾意匠을 보인다. 兩支柱의 頂上部는 內面 꼭대기에서 外面으로 내려오면서 弧線을 그렸기 때문에 바깥면에서 보면 뚜렷하지 않으나 안쪽이나 뒤쪽에서 보면 꼭대기 부분이 外面으로 四分圓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幢竿을 固定시키는 杆은 上部의 한곳에만 장치하였던 것인데, 上部에는 內面上端에 長方形의 홈을 파서 杆을 시설하였었다. 基壇部分은 近來에 補修되었는데, ciment와 雜石으로 구축된 基壇속에 파묻혀서, 元來의 基壇部 구조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兩支柱사이의 바다에는, 幢竿을 받고 있던 竿臺石이 남아 있어 대

장의 原形推定은 可能하다. 竿臺石은 上·下 二段으로 구성되었는데, 方形인 下層은 그 앞·뒷면에 二區씩의 眼象을 陰刻하였다. 下臺 中央에 놓인 上層臺石은 八角이고 그 윗면 中心部에는 둥근 구멍을 뚫어 幢竿을 놓도록하였는데 그 둘레에는 外邊과 같이 八角의 괴임臺를 彫出하였다. 八角側面은 立狀形의 單瓣仰蓮을 彫飾하였는데, 모두 一六瓣을 彫렸나. 竿臺는 비교적 完全한 狀態이고 여기의 眼象이나 蓮瓣의 彫飾手法으로 미루어 高麗作으로 보여진다.

春川 前坪里幢竿支柱

(도판 2)

江原道春川市前坪里

高約三、五m 高麗

基礎部分은 近來에 補修된 씨멘트基壇속에 묻혀버려 元來의 構造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두 支柱사이의 밑바닥에는 幢竿을 받치는 竿臺가 남아있으며, 그 둘레에 簡單한 蓮瓣을 새겼다. 支柱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으며, 그 上端部分의 曲線도 兩쪽이 서로 고르지 못하다. 幢竿을 固定시키기 위한 杆을 꽃기 위하여 內面上端의 한근데에 홈을 팠을 뿐이다.

洪川 希望里幢竿支柱

(도판 3)

江原道洪川郡洪川邑希望里

現高五m 寶物八〇號 高麗

支柱의 밑뿌리가 약간 굵게 만들어졌다. 兩支柱는 東西로約 七〇cm의 간격을 두고 마주서 있다. 아무런 彫飾이 없는 簡單하고 素朴한 支柱이다. 頂上部는 앞에서 보면 四分圓의 形態를 하고 있음을 알겠다. 幢竿을 固定시키는 杆을 윗부분 한곳에 마련하였고, 두 支柱의 안쪽면 上端에 長方形의 홈이 파였다. 이러한 略化된 樣式은, 時代가 降下된 때문인 것이다. 幢竿을 받치는 杆臺나 基壇部의 石材가 남아있지 않아 본來的 下部構造는 알 수 없다. 두 支柱의 下端部分이 自然石面 그대로 露出되었으며 江邊의 돌 밑에 서 있다.

天原 天興寺址幢竿支柱

(도판 4)

忠南天原郡聖居面天興里

高三m 寶物九九號 高麗

聖居山 天興里部 落 한가운데 位置하였다. 元來는 二層基壇위에 幢竿과 支柱가 서있었으나, 現在 基壇과 杆臺石이 破壞되어 흩어져 있다. 兩支柱의 下部는, 下端에서 七〇cm까지가 基壇部에 묻히는 部分인데, 治石은 하였으나 研磨하지 않아, 여러 橫線이 靈出되어 있다. 基壇이 原形대로 完全하다면 이 部分은 上·下 基壇에 묻혀서 基部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마주보는 兩支柱의 內側面에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上端에 幢竿을 固定시키기 위한 杆을 장치했던 長方形의 홈(杆溝)이 마련되었을 뿐이다. 홈은 普通 上·下 두곳에 마련하는 것인데, 이곳 支柱에서는 中·下部에는 없고 內面꼭대기에만 시설하였다. 外面은 꼭대기에서 下部까지 中央에 한줄의 縱線을 陽刻하였는데, 이 縱線文의 斷面은 弧形으로 되었고, 그 양쪽에는 낮은 補助線이 가늘게 새겨졌다. 前後 兩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어 造成年代의 降下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兩支柱의 頂部는 평평한데, 外面은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弧線을 그리며 夾여졌으며 屈曲은 없고, 그대로 五〇cm쯤 내려와서 支柱本래의 邊長이 되었다. 基壇部의 眼象, 兩支柱 各面의 治石과 線文等의 各部樣式이 統一新羅時代의 典型形態에서 退化된 面이 나타나 高麗初期의 造成으로 보인다. 이곳 天興寺에 屬했던 梵鍾이 國立中央博物館에 옮겨 陳列되었는데 여기의 銘文에 따르면 이 鍾은 高麗八代 顯宗元年(一〇一一)에 鑄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確實한 銅鍾의 造成年代는, 이 寺刹의 事蹟은 勿論 幢竿支柱와 五層石塔(寶物三五四)等의 年代推定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牙山 邑內里幢竿支柱

(도판 5)

忠南牙山郡溫陽邑內里

高二m 寶物五三七號 高麗

兩支柱는 東西로 마주서 있는데 下端部는 땅속에 묻혀 있다. 各面은 모두 잘 돌을 다듬었으며, 內·外面이나 側面에 아무런 彫飾도 없고 서리를 죽였다. 上端部는 一般의 形式인 幢竿支柱의 柱頭를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을 向하여 四分圓의 弧形으로 돌다듬하였다. 上端部 안쪽에 홈(杆溝)를 마련하고 長方形으로 깊게 파놓았다. 中間쯤이나 아래쪽에 이르면서 貫通하거나 半쯤 구멍(杆孔)을 파는 것이 普通인데, 이곳의 兩支柱는 上端部에만 파놓았다. 全面에 아무런 彫飾이 없어 素朴하다. 대개의 경우 支柱는 下端部가 上端部보다 굵어져서 安定感은 있으나 鈍重感을免치 못한다. 그러나 이곳의 支柱는 麗代作이기는 하나 支柱의 굵기에서 아래위가 별차없이 고루 다듬어져 세련된 느낌을 준다.

洪城 東門洞幢竿支柱

(도판 6)

忠南洪城郡洪城邑五官里

高四、七m 寶物 五三八號

高麗

東西로 마주서 있는 兩支柱는 周邊의 農地가 낮아졌기 때문에 下端部의 自然石面이 露出되었다. 支柱는 위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가늘어졌고 幢竿을 固定시키기 위한 杆시설의 홈(杆溝)을 內面上端에 長方形으로 파놓았다. 이밖에 다른 홈은 없다. 兩支柱의 下端사이에 長大石 一枚로 된 竿臺가 있고, 그 윗면 中央에는 큼직한 圓孔하나가 뚫여져 있다. 支柱의 表面은 外面과 兩側面에 彫飾이 있다. 兩側面은 上端부터 下端에 이르기까지 윤곽을 따라 넓게 파서 陰刻線을 나타나게 하였으므로 周緣帶를 이룬 것같이 보이고 陰刻은 얇다. 全體의 形態가 下端部에 이르러 굵어져서 安定感이 있고, 線條紋 등이 있어 裝飾的인 面이 보이기도 한다.

淸州 龍頭寺址鐵幢竿

(도판 7)

忠北淸州市南門路二街

支柱高四、二m 鐵竿全高 一二、七m 鐵筒高〇、六三m 同徑約

〇、四m 國寶 四一號 高麗 光宗一三年(九六二)

數없이 設置되었던 幢竿은 거의가 石造인 支柱가 남아 있고, 幢竿은 없어졌지만 鐵幢竿은 오직 이곳과 公州 甲寺에 남아 있고, 石幢竿은 羅州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幢竿에는 銘文이 있어 建立年代를 確實히 알 수 있어서 매우 貴重하다.

花崗石으로 된 支柱는 兩柱가 東西로 마주서 있고, 內側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나 外面 中央에는 세로로 굵은 隆起線이 彫飾되어 表面에 變化를 주었다. 그리고 外面의 兩側緣邊에 가늘게 陰刻된 線彫가 있어 장식적인 意匠을 보인다. 그사이에 같은 形態의 鐵筒二〇個를 쌓아 올렸는데, 이것이 原形대로 인지는 알 수 없다. 밑에서부터 셋째 鐵筒周圍에 鐵幢記가 陽鑄되어 있는데, 幢記에 「維峻豐三年太歲壬戌三月二十九日鑄成」이라고 記銘되어, 建立年代가 高麗 光宗一三年임을 알 수 있다.

南原 萬福寺址 幢竿支柱

(도판 8)

全北南原市王亭洞

現地上高約三m 寶物 三二號 高麗

아래 위가 거의 같은 크기의 斷面이 長方形인 支柱인데, 아무런 彫飾도 없다. 全面의 磨研이 조잡하고 치수도 고르지 못함은 時代의 降下를 나타내고 있다. 幢竿을 固定시키기 위한 杆은 上·中·下 세곳에 마련하였는데, 안쪽 上面에 홈을 長方形으로 파고, 杆을 끼우도록 하였다. 中·下部는 모두 둥근 구멍이고, 中部는 上部에서 約一m 내려와서 둥근 구멍을 뚫고 있는데, 西쪽 支柱는 外面까지 貫通되었다. 下部는 下端 가까이 구멍을 뚫어 中間部와 같은 形態를 하고 있으며 現在 下部는 땅속에 깊이 파묻혀 竿臺와 基壇部의 構造는 알 수 없으며 現在의 位置가 原位置로 推定된다.

錦城 羅州東門外石幢竿 (도판 9)

全南錦城市城北洞

高一·一m 寶物 四九號 高麗

花崗石으로 이어올린 幢竿까지 原狀대로 完全히 남아있는 貴重한 資料이다. 支柱의 頂上部는 上面이 平平하다. 幢竿의 固定을 위하여 內面의 上端에 杆을 끼울 홈을 팠는데, 幢竿의 아래는 鐵製의 帶로 여러번 돌려 돌렸으며 두 支柱의 홈에 끼워서 固定시켰다. 幢竿은 八角이며, 五장의 돌을 連結하여 竿柱를 세우고, 그 위에 屋竿石과 寶珠를 엮었다. 幢竿의 連結는 通式대로 各石材의 兩端部를 細長하게 깎아서 竿柱 두개의 半이 되게 하여, 이 部分에서 서로 結着시켰다. 上下로 두 곳에 圓孔을 貫通시켜 杆을 끼워 더욱 密着케도 하였다. 竿柱의 連結部分에는 圓孔밖으로 두 곳에 鐵帶를 감아서 堅固히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四곳에 마련되었다. 幢竿의 上部에는 一石으로 된 八角屋蓋石이 놓이고, 轉角의 反轉도 많아 高麗式 屋蓋形態를 보인다. 그 위에 寶珠도 있다. 幢竿은 짐대라고도 부르며 寺刹에서 幢을 걸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나 後世에 이르러서 風水說과 結合하여 羅州의 地形이 배모양(舟形)이기 때문에 그 安定을 빌기위해 돛대를 세운 것이라는 說까지 있다.

潭陽 邑內里石幢竿 (도판 10)

全南潭陽郡潭陽邑客舍里

高一·五m

寶物 五〇五號 朝鮮 顯宗五年(一八三九)重建

潭陽邑에서 東쪽으로 淳昌行 車道를 따라 約一km쯤 되는 길가의 民家앞에 서 있는데, 原位置로 推定된다. 單層基壇위에 建立되었으며, 基壇은 낮은 편이고 윗면은 약간 傾斜했으며, 側面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다. 그 頂面 中央에는 長方形으로 된 一段의 받침을 마련하여 幢竿臺座와 兩支柱를 받게 하였다. 支柱는 方形의 石柱로서 約八〇cm의 사이를 두고 南·北으로 마주서 있는데, 下端部는 基壇받침대안에 묻혀 있어 構造를

알 수 없다. 柱頭는 內側面頂上에서 外面으로 弧線을 그리며 急한 傾斜를 졌다. 幢竿을 받치는 臺石은 兩支柱사이의 基底部에 마련되었는데, 모를 죽인 方形이고, 그 側面에는 蓮花紋을 彫飾하였다. 幢竿은 細長한 八角기둥 三개를 連結하고, 그 위에 圓形幢竿을 올렸으며, 마디의 표시도 뚜렷하다. 八角돌기둥의 連結方法은 通式이고 上·下石의 連結部를 半으로 깎고 中間石의 兩端도 半으로 깎아, 서로 密接시켜 각기 鐵製環을 돌려 固定시켰다. 그리고 連結部分 또는 上·下에 圓形의 杆孔을 貫通하여 더욱 잘 固着케 하였다. 幢竿의 上端部에는 金屬製의 寶輪이 二重으로 장식되고 風磬(風磬)같은 장식이 붙어 있는데 現在는 二개가 남아 있다. 尖端에는 三枝槍같은 鐵針이 솟아 있어 避雷針의 印象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附着物을 考察해 보면, 이 幢竿은 裝飾的인 遺構가 잘 남아있는 貴重한 例라 하겠다.

이 幢竿 바로 앞의 碑石의 碑文에 따르면 現在의 石幢竿은 朝鮮 第二四代憲宗五年(一八三九)에 重建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兩支柱는 그 樣式手法으로 보아 高麗作으로 推測되며, 같은 곳에 서 있는 五層石塔이 高麗時代의 建立임은 이 支柱의 造成年代 推定에 도움이 될 것이다.

石 燈

石燈은 佛塔 또는 佛殿앞에 세워지는 佛敎의 인 것과 陵墓앞에 세워지는 非宗敎的인 것이 있다. 佛敎에서는 照明 目的外에 佛陀의 眞理인 光明을 暗黑과 같은 娑婆의 世界에 비친다는 敎理的인 意義도 지닌다. 材料에 따라 銅造와 石造가 있으나 韓半島에서는 全部가 花崗石製이며 그 造形美는 東洋 여러 佛敎國에서도 으뜸이라 하겠다.

三國期의 高句麗에서는 部材조차 發見된 일이 없고, 古新羅에서도 같은 事情이나 百濟에서만은 益山 彌勒寺址에서 火舍石 數個가 發見되었다.

統一新羅期에는 多彩로운 樣式을 하며 遺存例도 많다. 地域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新羅石燈은 (一) 典型樣式(浮石寺無量壽殿 앞 石燈, 法住寺四天王石燈等)

(二) 鼓腹型樣式(華嚴寺覺皇殿 앞 石燈, 開仙寺石燈等)

(三) 異型樣式(法住寺雙獅子石燈, 中興山城雙獅子石燈等)으로 分類할 수 있겠다.

典型樣式이란 方形地臺石위에 八角下臺石(伏蓮彫刻)이 놓이고, 그위에 八角竿石을 세운 다음, 八角上臺石(仰蓮彫刻)을 받은 위에 八角火舍石(四個火窓), 다시 八角蓋石, 相輪石을 얹는 形式으로 三國期와 新羅統一期를 通하여 가장 流行된 形式이다.

鼓腹型和 異型樣式도 典型樣式에서 變換한 것이다. 鼓腹型石燈 또한 上下가 八角을 基本型으로 하고 있으나 八角竿石을 鼓形으로 한 것이다. 이 形式에서는 裝飾性이 濃厚한데, 湖南地方에서 特히 流行한 形式이다. 異型樣式中에서 가장 많은 樣式이 雙獅子石燈이다. 獅子는 石燈에서 竿石에 利用되는데, 두 마리의 獅子가 마주 서서 上臺石을 받치고 있는 것이다.

高麗時代

대체로 三가지 樣式으로 分類할 수 있겠는데 (一) 典型樣式.. 新羅時代의 八角形態의 繼承인데 初期에 流行한 形式이다. 이러한 樣式에 屬하는 것으로는 羅州西門石燈을 들 수 있는데, 新羅典型樣式을 따르고 있으나 部分的으로는 高麗期의 特徵을 나타내고 裝飾性도 濃厚하다. 眼象을 方形地臺石 各面に 三區씩과 八角下臺石 各面に 一區씩 조각하였다. 眼象 輪廓線이 양쪽에서 아래로 향하다가 地線에서 안쪽으로 向해 眼象內에 花形을 形成하여 麗代에서만 나타나는 眼象形態를 하였다. 또 上臺石 윗면에 八角으로 火舍石을 받기 위한 層段도 마련하여 마치 高麗石塔의 屋身을 받기 위한 別石을 끼운 手法과도 같다.

둘째로 方形樣式.. 高麗時代에 나타나는 새로운 樣式인데 上下가 方形

을 基本形態로 하는 樣式이다. 이에 屬하는 例인 灌燭寺石燈은 圓柱의 아래위 끝쪽에 같은 二줄의 되를 돌리고, 中央에는 三줄을 돌렸는데, 가운데 것은 조금 굵고 그위에 四잎의 複瓣蓮花紋 八개를 배치하였다. 이 蓮花의 數는 八角基本形의 형식으로 생각되는데, 圓柱를 쓰면서도 下臺石위의 圓柱받침이나 上臺石밑의 圓柱피임에도 八角물딩이 있는 것과 같은 方式에 屬한다.

셋째로 典型樣式.. 高麗石燈은 하나의 樣式을 따르면서도 部分的으로 是樣式의 多樣性을 보이며 異型石燈에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그中에 a, 羅代樣式的 模倣 b, 한 樣式的 變遷過程에서 過渡의 形態를 보이는 것 또는 c, 전혀 새로운 樣式이 나타나기도 한다.

a, 樣式은 高達寺址雙獅子石燈을 들 수 있는데 統一新羅期인 法住寺나 中興山城雙獅子石燈을 모범으로 하였으며, 羅代 것이 마주 서서 앞발로 上臺石을 버티고 선 것과 달리, 二마리 모두 前面을 向하여 쭈구리고 나란히 앉아 있다. 竿石 以上도 八角으로 되었으나 正八角이 아닌 四角의 모만 죽었다. 獅子밑의 下臺石地帶石등이 모두 方形으로 되어, 그 形態가 方形이라는 느낌이 든다. 다음은 b, 의 樣式變遷의 過渡的 作品으로 沃溝鉢山里石燈을 들 수 있다. 下臺石은 通式이나 竿石은 角形의 四모를 동글게 하고, 表面에 雲龍紋을 陽刻하였다. 이 石燈은 竿柱나 火舍石이 八角에서 四角으로 옮겨가는 過渡期的 樣式이 나타나고, 竿柱의 雲龍紋과 橢圓形의 火窓도 보기 드문 例이다.

c, 의 전혀 새로운 樣式的 例로 法泉寺址 智光國師玄妙塔殿址에서 發見된 石燈火舍石片이 平面 六角形임은 特異하다. 六角中 三면에 火窓을 개설하였던 듯하며, 全面에 蓮花紋, 唐草紋, 帳幕形, 飛天등과 引枋, 欄杆등 木造建築의 樣式까지 滿面に 彫飾하였다. 破片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새로운 樣式으로 볼 수 있다. 이 部類에 드는 石燈으로 神勒寺 普濟尊者石鍾前石燈인데, 八角을 基本形으로 한 것은 典型 樣式과 같으나 上下臺石의 높이와 火舍石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고, 竿石의 幅과 火舍石의 幅도 거의 같은 것은 異例의 形態이다. 大理

石을 材料로 한 火舎石의 全面에 彫刻이 많고 各面에 개설한 火窓의 形式도 眼象을 본만 것 과 같은 形態이다. 특히 臺石의 形式은 竿石의 幅이 넓어지고 높이가 줄어든 點은 높고 맵쳐있는 基本形態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鈍重한 形式은 朝鮮朝石燈으로 계승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高麗末의 石燈은 羅代에 流行하던 八角을 基本形式으로 하고, 典型樣式이 初期에는 그대로 계승되다가 平面이 方形을 基本形으로 하는 새로운 樣式이 發生된다. 그것은 마침내 方形을 基本形으로 삼게되면서도 石柱와 같은 朝鮮朝石燈의 樣式이 이 時期末부터 나타나기 始作하고, 前代에 있었던 雙獅子石燈의 模倣作도 보이기 된다.

이리하여 王陵앞에 세우는 長明燈으로 代表되는 朝鮮時代 石燈으로 이어진다.

羅州 西門石燈 (도판 11)

原 全南羅州邑西門

現 서울特別市 景福宮內

總高三、二七m 竿石高〇、八三m 地臺石幅一、四四m

寶物 三六四號 高麗

이 石燈은 一九二九年 原所在地에서 現位置로 移建하였는데, 그때 破損된 部分을 補完하여, 八角火舎石과 寶珠를 새로 만들어서 맞춘 것이다. 그 때문에 現在의 火舎石과 寶珠가 單部材의 조각과 다르게 보인다. 넓은 方形地臺石위에 세워졌는데, 下臺石은 八角蓮花臺로 各 옆면에 兩隅柱를 各출하고 眼象이 陰刻되었었다. 眼象안에는 中央下部에 귀꽃문이 조식되었다. 蓮瓣은 八葉의 伏瓣이며 下臺頂上面에 二段의 받침을 各출하여 竿柱를 받고 있다. 竿石은 八角으로 되었는데 各面에 細長한 兩隅柱를 各출하고 上·下端에도 端帶를 彫出하여 마치 額을 짜놓은 듯하다. 各面에 一行씩 모두 八行의 銘記가 陰刻되었었는데, 全文은 다음과 같다.

南瞻部洲高麗國羅州 中興里□長羅在堅應迪孫□先月心光□心聖壽天

長百穀豐登

錦邑安泰富貴恒存 願以燈籠一座石造排立三世諸佛聖永獻供養 大安九年

癸酉七月日謹記

上臺石은 아랫면에 二段의 괴임을 各출하고 復葉八瓣의 仰蓮이 조각되었으며 옆면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다. 火舎石은 새로 만든 것이나 古代을 갖추어 四面에 火窓을 두었다. 八角屋蓋石은 一般形式과는 달리, 매우 裝飾의 으로 조각되었는데 各面마다 처마끝에는 帳幕을 드리운 것처럼 縱線紋을 새겼고 八角의 轉角部에는 三山立狀形의 귀꽃을 마련하였다. 各 귀꽃사이에도 卷紋과 귀꽃문을 조식하였다. 屋蓋頂上에는 寶蓋石이 놓였는데, 全面이 磨滅되어 完全하지 못하다. 혹간 남아있는 紋樣의 흔적속에서 原形을 짐작해 보면 帳幕의 조식이나 귀꽃문 등이 屋蓋石의 그것과 같은 樣式手法인 것 같다.

이 石燈은 新羅時代의 基本型인 八角을 이루고 있으나 各部의 彫刻은 鈍重하며 특히 屋蓋石의 形態는 工藝的인 技法을 보이고 있다. 竿石에 陰刻된 銘文에 따르면 大安九年 즉 高麗 第一三代 宣宗一〇年(一〇九三)에 石燈이 建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造成年代가 확실하며 各部樣式은 다른 여러 遺物의 年代比定에 하나의 基準이 되는 重要한 作品이라 하겠다.

高達寺址 雙獅子石燈 (도판 12)

原 京畿道驪州郡北內面上橋里

現 서울特別市 景福宮內

高二、四三m 寶物 二八二號 高麗

이 石燈은 高達寺址에 倒壞되어 部落民이 수습 保管하였던 것을 그후 몇 곳을 거쳐 一九五九年 景福宮으로 옮긴 것이다.

典型的인 樣式에서 벗어난 異型石燈으로서 現在 火舎石까지만 殘存하고 그 위의 屋蓋石과 相輪部를 잃고 있다. 長方形의 地臺石위에 二枚石으로 짜여진 基臺石이 놓였다. 기대석 各面에는 眼象이 陰刻되고, 기대

윗면에는一段의 받침을 刻出하였다. 竿柱石의 높이는 자리에는 一雙의 獅子를 安置하기 위하여一段의 받침을 마련하였는데 괴임대 위에 안치된 獅子는 跏坐像으로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 한쌍의 사자 등위에는 方形의 雲紋기둥이 놓였는데, 이 기둥 사이에는一段의 不等邊八角形의 雲臺를 마련하였다. 上臺石도 부등변八角형으로 밑면에 높직한 二단의 받침과 낮은一段을 더한 三단받침을 갖춘 다음, 그 위에 넓다란 臺를 다시 마련하였다. 火舎石도 부등변八角형으로 四面에 火窓을 개설하고 나머지 벽면은 좁게 남겼으며, 各隅柱를 갖추었다. 위와 같이 조성된 石燈은 新羅時代의 基本形인 八角에서 變形된 것인데 年代의 下降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下臺의 眼象과 上臺石의 蓮瓣등은 新羅式을 갖추었으나 雙獅子像의 各部 彫刻과 中臺의 雲紋 및 彫飾紋樣은 鈍重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같은 여러점을 종합해 보면 造成年代는 高麗初年 一〇世紀頃으로 推定된다.

玄化寺址石燈 (도판 13)

原 京畿道開豐郡玄化寺址

現 서울國立中央博物館

全高 四、二m 高麗 顯宗 一一年頃(一〇二〇)

平面이 八角에서 四角으로 變化한 一例로서 灌燭寺石燈과 같은 形式이다.

現在 地臺石을 갖추지 못하고, 下臺部는 基臺와 下臺石으로 구성되었다. 基臺는 方形인데, 各面에는 眼象이 三區씩 있고, 그 모양은 定林寺址의 佛坐臺 등에서 볼 수 있는 眼象紋을 하였다. 竿柱石은 圓柱形의 鼓腹形이고, 上下 鼓腹의 表面에는 伏蓮과 仰蓮으로 장식하였으며, 中間 高부 표면에는 花紋과 二줄의 橫帶로 上下를 연결한 장식을 갖추었다. 蓮花上臺石위의 方臺는 비교적 높게 하였으며, 方臺 윗면에는 四곳에 작은 高부석으로 火舎기둥을 갖춘하였다. 八葉의 複연 단판문으로 장식될 圓形의 火舎기둥괴임이 받치는 屋蓋石은 方形이며, 밑면에 一段의

屋蓋받침을 마련하였고, 轉角의 받침은 완만한 曲線을 이루었다. 屋蓋 위에는 낮은 露盤이 놓였는데, 아랫부분에 一段 받침을 마련하고, 윗면에 八葉의 單瓣부연을 장식하였다. 노반위에 方形의 仰花가 놓였고, 그 밑에는 三段받침이 있다. 仰花에는 寶輪이 놓이고, 그위에 六角形의 寶蓋가 마련되고, 그 밑에는 一段 받침을 갖추고 또 다시 귀꽃을 갖추었다. 相輪部는 露盤과 仰花·寶輪·寶蓋·寶珠가 차례로 올려져서 화려한 形態를 보인다.

高麗史에 따르면 玄化寺는 高麗 顯宗 一六年(一〇二〇)에 創建되었다 하니 石燈도 절과 같은 時代로 推定된다.

이 石燈은 玄化寺址에서 德壽宮의 옛 박물관으로 옮겨다가 다시 景福宮前國立中央博物館으로 移建되었다.

神勒寺 普濟尊者石鍾乳石燈 (도판 14)

京畿道驪州郡北內面川松里(神勒寺境內)

總高 一、九四m 火舎石高 六六cm

寶物 二三一號 高麗

基本形은 八角으로서 八角基壇部위에 八角의 火舎石과 屋蓋를 얹고 그 頂上에 寶珠를 놓은 構造이다. 新羅末부터 石燈의 位置가 佛殿앞에서 僧侶의 浮屠앞으로 옮겨지면서 점차 獻燈에서 長明燈의 性格으로 전환되는 傾向을 보이는 代表的인 例이다. 高麗初부터 流行하던 變形樣式이나 四角石燈과는 달리 傳統的인 八角樣式을 계승하면서 外形의 인 변모를 보이고 있다. 八角의 높은 地臺石을 놓았고, 그 위에는 一石으로 된 上·中·下臺石이 있는데 下臺는 複葉의 伏瓣蓮華紋이 둘러졌다. 竿石은 낮은 中臺形으로 八角이며 連珠柱의 隅柱를 조각하고 各面에 亞字形의 眼象을 陰刻하였는데, 그 안에 花紋을 조각하였다. 上臺와 下臺의 蓮瓣은 똑같이 一六瓣의 複蓮으로 조각하였다. 火舎石은 蠟石材로서 一石으로 되었으며 八角에 각기 圓柱를 조각하고 圓柱에다 蟠龍을 陽刻하였으며 各面의 火窓은 사라센 系統의 完만한 曲線의 火頭窓樣式을 따르

고 있다. 火窓이 모두 八口인데 窓口마다 그 위의 間地에 飛天像을 조식하였으며 上段에는 낮은 二段의 돌출부를 표현하였다. 屋蓋石은 重厚하나 轉角의 反轉이 輕快하다. 다소 鈍重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 밑면에는 一段의 屋蓋받침과 넓은 落水홈이 陰刻되고 추너마루는 半圓形으로 묘사하였다. 相輪은 表面에 蓮花形이 장식된 覆鉢이 있고, 그 위에 二段의 바퀴와 큼직한 蓮봉오리形의 寶珠가 있다.

이 石燈은 火舍石外에는 모두 品質이 좋지 않은 花崗石材이고 各部의 조식이 完全하나 火舍는 軟質이어서 다소 磨損이 보인다. 普濟尊者의 石鍾 및 墓碑와 함께 세워진 年代가 確實한(一三七九) 石燈으로 高麗末의 貴重한 一例인 동시에 朝鮮時代 長明燈의 祖形이기도 하다.

華川 啓星里石燈

(도판 15)

江原道華川郡下面啓星里

高二、八m 寶物 四九六號 高麗

啓星山기슭 俗稱 啓星寺址에 倒壞된 石塔材와 石鍾型浮屠가 散在하고 있는데 이 石燈은 그 中央部에 자리잡고 있다. 全部材를 完全히 갖춘 石燈으로 典型樣式의 구성에서 各部를 變形시킨 것이 特徵이다. 下臺部는 地臺와 蓮華臺를 一石으로 조각한 것으로, 平面은 六角이며, 一二葉 單瓣伏蓮이 비교적 강건한 모습을 하였다. 蓮華臺 윗면에는 中央에 圓形의 竿石과임이 刻出되었고, 이곳의 蓮花 彫刻手法는 金山寺石蓮臺연 화문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竿柱石은 圓形의 鼓腹形系를 따르고 있으며 上·中·下에 鼓形을 배치하였다. 中間鼓의 上·下에는 一段의 낮은 턱이 마련되었으며, 上·下鼓에는 앞쪽 측면에만 一段의 턱을 조출하였다. 火舍石도 六角으로 造成된것인데 火窓은 橢圓形으로, 六面 모두에 개설되었다. 火窓의 周圍에는 좁고 낮은 一段의 턱이 마련되었으나 門扉를 固定키 위한 못구멍은 없다. 이 石燈에서 注目되는 것은 火舍石으로, 六장의 돌로 結構된 점이며 各 火舍面의 中央에서 分離, 組合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특히 높이에 비해 平面이 넓어서 安定感을 주고 있다

다. 屋蓋石은 一石으로 되었는데 六角이고 아랫 면에는 一段의 낮은 隅이 각출되었고 合閣의 隅棟도 뚜렷하다. 轉角에 귀꽃무늬가 있고 相輪部는 큰 寶珠가 장식되었다.

現在까지 六角形石燈은 北韓地方의 二基를 包含하여 四基가 알려지고 있다. 이 啓星里石燈은 그 중의 하나인데 六角은 八角에서 方形으로 變해가는 過渡期的인 樣式으로 보인다.

論山 灌燭寺石燈

(도판 16)

忠南論山郡恩津面灌燭里(灌燭寺境內)

高五、四五m

寶物 二二二號 高麗 光宗 一九年(九六七)

灌燭寺 앞들의 恩津彌勒佛의 앞에서 있는데, 方形의 高麗式으로서 造成年代가 확실한 石燈이다.

下臺石은 方形의 側面石 위에 圓形蓮花臺를 놓았는데 八瓣의 伏蓮은 데두리가 넓으며, 新羅時代의 蓮瓣과 差異를 보인다. 下臺上面에 二段의 받침을 마련하여 圓柱形의 竿柱를 받고 있다. 竿柱石의 上下端에 二條의 圓帶, 그리고 中央에는 三條의 圓帶가 陽刻되었으며, 中央部에 만은 中心의 굵은 圓帶 위에 四葉의 複瓣蓮花紋을 조식하였다. 上臺石은 方形인데 아랫면 複葉 八瓣의 仰蓮臺는 圓形으로서 그 밑에는 二段의 庇임이 彫出되어 下臺石과 對하고 있다. 二層으로 구성된 火舍는 上·下가 모두 方形을 이루었다. 아래쪽의 主火舍는 四개의 隅柱石만을 세워서 屋蓋를 받도록하여, 火窓은 各面이 통하게 되었고, 창구는 넓다. 윗쪽 火舍는 形式的으로 구성되어 앞면에만 火窓을 模刻하였다. 方形의 屋蓋石은 아랫면에 二단의 낮은 받침이 각출되고, 各面의 처마는 가법계 反轉되었다. 四隅의 轉角部에는 三山形의 귀꽃이 있어 輕快感을 주며, 落水面은 重厚하나 四隅의 合角머리가 뚜렷하다. 上層의 屋蓋石은 같은 形態로서 轉角部에는 귀꽃이 조식되고, 처마 밑은 平薄하다. 屋蓋頂上에는 一石으로 된 寶珠가 놓였는데 조각솜씨가 든중하다.

各部에 比하여 竿柱가 두껍고, 多面柱가 아니어서 효과를 덜고 있으나, 高麗石燈의 代表作이라고도 하겠다. 建立年代는 石造彌勒像과 같은 倣인 제4代 光宗 一九年(九六七)으로 推定된다.

沃溝鉢山里石燈 (도판 17)

原 全北完州郡三奇面三奇里
現 全北沃溝郡開井面鉢山里
總高 二、五m 地臺石幅 一、一七m
寶物 二三四號 羅末麗初

日政 때에 現位置로 옮긴 裝飾性이 매우 짙은 典型樣式의 石燈이다. 一枚石으로 方形의 地臺石과 蓮花下臺石을 조성하고 蓮花下臺石은 圓形의 平面 위에 八葉의 伏蓮을 複瓣으로 새겼다. 瓣形은 無量寺石燈 蓮花下臺紋과 유사하며 연화 윗면에는 二段의 圓形竿柱石받침을 각출하였다. 竿柱石은 짧고 중후한데 四角柱의 各모서리(角)를 둥글게 깎아서 表面에는 밑에서부터 上端까지 한마리의 蟠龍과 雲紋을 돌려 陽刻하였다. 이러한 形式의 竿柱는 우리나라에서는 前例를 볼 수 없다. 竿柱石이 圓形으로 이루어진 例는 다만 渤海「東京城內石燈」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上臺石은 八角이나 밑면에는 一段의 圓形받침과 八葉의 單瓣仰蓮을 조식하였는데 瓣안에는 寶相華紋을 장식하였다. 보상화의 윗부분에는 寶珠形의 花紋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火舎石은 不等邊八角形으로 四面에 火窓을 개설하였으며, 나머지 四面에는 武器를 잡은 四天王像을 陽刻하였다. 火窓은 橢圓形으로 周邊에는 一段의 높은 額을 두르고 있다. 屋蓋石은 八角으로 밑면에 一段의 屋蓋받침과 落水홈이 陰刻되었다. 落水面은 平薄하고 合角이 뚜렷하며 轉角의 反轉이 輕快하다. 屋蓋石 頂上에는 八瓣의 伏蓮이 조식된 內部에 一段의 낮은 圓形받침을 각출하였는데 현재 寶珠는 잃고 있다.

이 石燈은 그 形態가 八角에서 四角으로 變해가는 過渡期的인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竿柱와 火舎石의 造成樣式은 羅代에서 약간 降下하는

時期로, 造成年代가 羅末麗初인 一〇世紀頃으로 推定된다.

石 碑

碑는 中國의 周代로부터 보이는 木碑가 오랜 歲月을 거치는 동안 石 碑로서의 形態와 樣式을 갖추게 되었다. 唐代에 이르러 螭首, 碑身, 題 額, 龜趺, 台石을 구비하는 典型이 定立되어 後世의 模範이 되었다. 韓半島에서는 三國期에 自然石 또는 圭形이던 石碑가 統一新羅時代에 唐碑의 수입으로 많은 變化를 이르게 귀부, 比좌, 이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체로 新羅碑는, 첫째 古新羅의 古典基本型(北漢山眞興王巡狩碑等), 둘째 唐碑의 模倣形(太宗武烈王陵龜趺와 螭首等) 셋째 唐碑模倣形의 變形(興德王陵龜趺)으로 그 變遷과정을 分類할 수 있겠다.

高麗에서는 統一新羅期의 唐碑模倣形을 계승하면서 高麗初期(一〇)~ 一二C)에는 新興國家의 氣象다운 雄壯하고 精巧한 彫飾, 碑身兩面과 주위에 雲龍紋과 寶相華紋이 새겨지고 龜趺의 龜頭는 龍頭化된다(菩提寺大鏡大師塔碑, 興法寺眞空大師塔碑等).

中期가(一二C)~一四C)되면 새로운 樣式이 出現되며 台石위에 龜趺와 螭首도 없는 碑身을 세우고 그위에 우진각지붕 모양으로 된 圭頭形 石碑가 出現한다(寶鏡寺圓眞國師塔碑等) 末期(一二C中葉~一四C)까지는 龜趺와 螭首의 形式이 退化되고, 높은 台石碑座와 屋蓋形의 螭首를 갖춘 石碑形態로 되며 이 形式이 다음의 朝鮮時代石碑의 模範이 된다. 위에서와 같이 高麗의 石碑가 주로 佛敎에서의 塔碑인데 比하여 朝鮮代의 石碑는 陵墓石碑로 세워지는 것이 많은 對照的이라고 하겠다.

淨土寺 弘法國師實相塔碑 (도판 18)

原 忠北中原郡東良面荷川里
現 서울景福宮高三、七五m 寶物三五九號 高麗(顯宗八年一〇一七)

이 碑는 一九一五年 原所在地인 淨土寺址에서, 當時의 朝鮮總督府가 景福宮으로 옮긴 것이다. 題額은 「實相之塔의 四字를 楷書로 二行 「實相」之塔」이라 陰刻하였는데 碑身石 上端에는 「開天山淨土寺故國師弘法大禪師之碑」라 篆書하였다. 龜趺의 龜頭는 龍頭化되었는데, 口에는 齒 如意珠를 물고 있다. 목과 가슴에 거북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었고, 等에는 六角龜甲紋이 등全體를 덮고 있다. 龜甲中央의 碑座下端 둘레에는 卷雲紋을 彫飾하고, 그안에 臺座를 마련하여 前後와 左右側面에 眼象을 刻出하였다. 앞은 碑座上端에는 一段의 佛面像을 돌리고 碑身石을 세웠다. 碑身은 長方形이며, 앞면에 本文이 있고, 뒷면에는 陰記가 있다. 螭首에는 連珠紋과 같은 紋樣으로 彫飾하고, 낮은 二段의 받침을 마련하였다. 側面에는 連珠紋, 卷雲紋 등을 彫刻하고 頂上部에 이르기까지의 全面에 龍틀임을 透刻하였고, 篆額둘레에는 卷雲文과 眷屬들이 彫刻되었다. 碑文의 끝부분에 「歲次丁巳九月日立」이라 碑를 세운 年時를 적어 끝맺었으며 孫夢周가 撰하고 筆者는 不明이다. 碑身 前後 文面은 風化作用이 甚하여 인멸된 것이 大部分이다.

弘法大師는 新羅末高麗初의 僧으로 新羅 第五代 神德王代에 出生하여 一二歲에 出家하였으며 高麗太祖元年(九三〇) 具足戒를 받았다. 그後 玄信을 따라 入唐하였으며 歸國하여 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成宗은 大禪師의 號를 내렸고, 穆宗은 國師로 封하여 奉恩寺에 移住케 하였다. 碑文이 磨滅되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는 結跏趺坐한 채로 入寂하였다. 그해는 明白하지 않으나 螭首篆額에 楷書를 새겨 놓는 일은 보기 드문 例이다.

菩提寺 大鏡大師塔碑

(도판 19)

原 京畿道楊平郡龍門面延壽里

現 서울 景福宮

寶物 三六一號 高三、五m 高麗太祖二二年(九三九)

龜頭는 直立龍頭化했고, 口에는 如意珠를 물었다. 平薄한 龜趺의 등

에는 六角龜甲紋을 나타내었고, 龜甲 둘레에 鬃(絲) 모양의 紋樣帶를 돌렸다. 螭首는 寫實的으로 되었으나 龜趺와 의 比例가 안맞는다. 題額의 文字는 甚한 磨滅로 지금은 判讀할 수 없다. 雲紋과 서로 섞인 蟠龍 두마리가 題額을 中心으로 구슬을 다루는 것 같이 힘차게 彫刻되었다. 碑題는 「高麗國彌智山菩提寺故教諭大鏡大師玄機之塔碑銘并序」이고, 碑文은 崔彥擥가 글을 짓고 李桓樞가 歐陽詢體의 楷書로 썼다.

大鏡大師의 俗姓은 金氏이며 法諱는 麗嚴이다. 新羅四八代 景文王二年(八六二) 지금의 忠南 藍浦에서 出生하여 어려서 無量寺에서 廣宗大師에게 師事하다가 大師의 示寂後 入唐하여 雲居大師에게 心印을 얻고 歸國하였다. 高麗太祖一三年(九三〇)에 菩提寺에서 入寂하니, 太祖가 諡號를 「大鏡」이라 내리고 塔名을 「玄機」라 하였다.

太古寺 圓證國師塔碑

(도판 20)

京畿道高陽郡神道邑北漢里

寶物 六一一號 高三、四二m 禩王二一年(一三八五)

넓다란 長方形의 地臺右위에 龜趺와 碑身, 螭首를 갖추었고, 龜趺의 등에는 六角形의 龜甲紋이 조각되었다. 龜頭는 龍頭化하였고 口는 크게 벌었다. 龜趺와 龜甲은 高麗石碑의 形式을 갖추었으나 모든 조각은 形式化하였다.

碑身은 長方形이고 下端部는 碑座에 품게 되었고, 앞면에 碑文, 뒷면에 陰記가 있다. 앞면의 上端에 「圓證國師塔銘」이라 題額이 있다. 螭首의 아랫쪽은 一段의 받침이 있고 그 바깥쪽에 仰蓮紋을 돌리고 위에는 서리서리 얽힌 雙龍을 조각하였다.

이 石碑는 高麗末의 高僧인 普愚大師의 내력을 기술한 浮屠塔碑이다. 碑文에 따르면 圓證國師의 諱는 普愚, 號는 太古, 俗姓은 洪氏이다. 二五代 忠烈王二七年(一一三〇)에 出生하고 一三歲때 出家하여 檜巖寺의 廣智禪師에 師事하였다. 元에 갔을 때는 順帝가 金欄袈裟와 沈香, 拂子 등을 賜하였다고 한다. 三二代 恭愍王이 廣明寺圓融府를 세우자 王師가

되었다. 辛旽의 횡포를 못마땅하게 여겨 小雪寺로 은거하였다가 禰王八年에 이곳에서 入寂하였다. 太古寺는 忠惠王復位二年(一三四一)에 大師가 創建한 절이다.

檜巖寺址 禪覺王師碑

(도판 21)

京畿道楊州郡檜泉面檜巖里

高 三、〇六 m 幅 一、六 m 寶物 三八七號 禰王三年(一三七七)

이石碑의題額은「禪覺王師之碑」이며 碑額은「高麗國王師大曹溪宗師 禪教都摠攝動本智重興祖……」로 시작하였는데 八字가 缺失되었다. 高麗末의 復古調를 나타낸 唐碑形式으로서 龜趺는 巨石을 略化한 彫刻技法이며 다소 추상적으로 다루었다. 龜甲의 둘레는 基壇으로서 가질 수 있는 最少限의 面積을 확보하였을 뿐이다. 螭首는 別個 石材로 만들지 않고 碑身石과 一石으로하여 身上上端에서 리서리 엄힌 雙龍을 扶餘의「唐 劉仁願紀功碑」나 後의 圓覺寺碑와 같은 形으로 彫飾하였다.

禪覺은 高麗末의 僧으로서 諱는 惠勤, 號는 懶翁, 初名은 元惠이며 靈山사람으로 忠肅王七年 庚申正月十五日(一三二〇)에 出生하였다. 忠穆王四年(一三四八)에는 元에 進尼갔었고, 後에 檜巖寺에 들어가 寺字를 크게 造營하였다. 禰王二年(一三七六) 密州의 瑩原寺에 住居케 하기 위하여 護送中 神勒寺에서 五七歲로 入寂하였다. 碑의 建立은 다음해 六月에 있었다.

神勒寺 普濟尊者石鍾碑

(도판 22)

現 京畿道驪州郡北內面川松里

總高 二、一一 m 碑身石 一、二一 m 碑身幅 〇、六一 m

寶物 二二九號 高麗 禰王五、一三七九

이石碑는 大藏閣記碑보다 四年앞서 세운 것이다. 普濟尊者 懶翁의 石碑는 楊州 檜巖寺에도 있는데, 이곳의 石鐘碑는 懶翁의 墓碑이다.

全體의 造形은 大藏閣記碑와 같으나 臺石은 三段으로 造成하고 층첩

시켰다. 또 上段의 臺石에 一段의 仰蓮臺를 마련하고 그위로 碑身을 세웠으며, 碑身 양쪽에 長方形의 기둥을 세워 身石을 보강토록하였다. 碑身 上段에는 蓋石을 얹었는데, 이 蓋石에는 木造建物에서 棋包와 기와골이 뚜렷하게 彫出되어 高麗末의 石碑樣式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石碑이다. 碑文의 첫머리에「禪覺王師普濟尊者之示寂于驪與神勒寺也」라 한바와 같이 懶翁普濟尊者는 密州 瑩原寺로 向하던 중 禰王二年(一三七六) 이곳에서 五七歲로 入寂하였다. 碑의 表面에 石鐘記와 眞堂詩를 새겼으며, 詩의 끝부분에는「……成均大司成李樞撰」과「……進賢館大提學 臣韓侂奉教書」를 附書하였다. 이와같이 撰者와 書者의 직함과 성명을 뒤로 돌린 보기 드문 例의 碑文을 갖춘 大理石碑이다.

神勒寺 大藏閣記碑

(도판 23)

京畿道驪州郡北內面川松里(神勒寺境內)

碑身高 一、三三 m, 幅 〇、八八 m 寶物 二二三〇

神勒寺에는 원래 極樂寶殿 西쪽 언덕에 大藏閣이 있었는데 高麗末 牧隱 李樞와 王師 懶翁의 門徒들이 發願하여 經律論을 印出하여 收藏하던 집이었다. 이石碑는 大藏閣의 造成에 따른 여러 사실을 記錄하였는데 앞면에는「嗚呼 三十餘年之久而先君之願始成」이라 시작되며, 뒷면에는 印出, 碑세우는데 참여한 僧徒와 高官과 信徒 數十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碑의 建立年代는 大東金石書에「……洪武」라고만 있어 分明치 않으나 海東金石苑은 洪武十六年(禰王九, 一三八三)이라 推定하고 있다. 碑文은 字徑 二cm의 楷書로 直提學 權鑄의 글씨이다.

石碑 전체의 造形은 특이하게도 新羅時代以來의 一般的인 樣式과는 다르다. 龜趺와 螭首는 長方形의 伏蓮臺石과 屋蓋石으로 생략 변형되었고, 碑身의 保全을 위하여 碑身 양쪽에 長方形 石柱를 密着시켜 지탱케 하였다. 이와 같은 造形形式은 高麗末에 나타나는 것인데, 朝鮮時代 石碑樣式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身部의 文面은 많이 破損되어

全文을 判讀할 수 없는 狀態이며, 碑身石은 大理石, 屋蓋石은 花崗石으로 되었다.

高達寺 元宗大師慧眞塔碑 및 螭首 (도판 24)

京畿道驪州郡北內面上橋里

寶物 六號

龜趺高 〇, 九一 m, 龜趺長 三, 二一 m, 螭首高 一, 一 m, 同幅 二, 三三 m 高麗 光宗二六年(九七五)

碑名은 「慧目山高達禪院國師元宗大師之碑」로 一九一六年 倒塌되어, 碑身石은 國立博物館에 옮겨졌었고, 現在는 景福官勤政殿 西쪽 廻廊에 陳列되었다. 지금 高達寺址에는 龜趺와 螭首만이 殘存한다. 龜趺와 螭首는 新羅末期石碑의 形式을 充實히 따른 雄大하고 正교한 手法으로 彫飾되었다. 龜頭는 龍頭化되었으며 눈과 코의 彫出은 奇異하고 등의 龜甲은 깊게 六角龜甲紋을 새겼다. 등中央의 長方形 碑座는 雲文과 伏蓮을 섞어, 彫刻하였으며 四足으로 地臺石을 닦고 있는데, 발가락끝은 寫實的으로 銳利하게 나타내었다. 螭首에는 仰蓮과 雲紋을 各段받침에 장식하여 蟠龍을 돋보이게 하였다. 대체로 慶州 武烈王陵碑의 龜趺와 같은 新羅石碑形式과는 相當한 格차를 보이니 高麗初의 발달한 氣象을 엿볼 수 있다.

元宗大師는 新羅四八代 景文王九年(八六九)에 出生하였는데 俗姓은 金氏이다. 二二歲때에 三角山 藏義寺에서 具足戒를 받았고, 五一代 眞聖女王五年(八九二)에 入唐하여 子禪和尚에 師事하였다가 五四代 景明王五年(九二二)에 歸國하여 鳳林寺에 住錫하였다. 高麗四代 光宗九年(九五八)에 九〇歲로 入寂하니, 王은 「慧眞」이라 諡號를 내리고, 眞影을 그리게 하였다. 碑文은 翰林學士 金廷彥이 글을 짓고, 글씨는 名筆 家 張端說이 썼다.

瑞峰寺 玄悟國師塔碑 (도판 25)

京畿道龍仁郡水枝面新鳳里

碑身高 一, 八八 m 幅 〇, 九七 m 寶物九號 高麗明宗一五年(一一八五)

碑身上面의 題額은 「贈諡玄悟國師碑銘」이라 篆書되고, 碑文첫머리에 「高麗國大華嚴浮石寺住持贈諡玄悟國師碑銘并序」로 시작되었는데, 磨滅이甚하여 判讀이 곤란하다. 塔碑의 造形은 寶鏡寺 圓眞國師碑, 億政寺 大智師碑, 普光寺重創碑 등과 같이 碑身 上端의 兩角面을 귀접이한 圭形의 碑身石이며, 地臺石도 四邊을 접은 간략한 形式이다. 蓋石과 여러 彫飾을 생략한 高麗石碑의 새로운 系統을 보여준다.

玄悟國師는 高麗 一七代 仁宗三年(一一二五)에 出生하였고, 俗姓은 王氏, 諱는 宗璘, 字는 重之이며 一九代 明宗八年(一一七八)에 五三歲로 入寂하였다.

塔碑의 建立年代는 入寂後 七年인 明宗一五年(一一八五)이며 碑文은 文簡公 柳公權이 썼다. 碑身石材는 粘板岩이고, 臺石은 花崗石으로 된 高麗中期以後부터 나타나는 圭首形塔碑의 하나이다.

彰聖寺 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도판 26)

原 京畿道華城郡日旺面上光教里

現 京畿道水原市梅香洞

碑身高 一, 五一 m 碑身幅 〇, 八一 m 總高 二, 一一 m 寶物一四號 高麗 禑王二二年(一一八六)

이 石碑는 長方形이 臺石을 놓고, 그위에 碑身石을 세우고 身石의 上端에는 우진각형의 屋蓋石을 얹은 高麗末石碑의 한 形式을 보이고 있다. 碑의 上端에는 題額이 篆書로 「贈諡眞覺國師碑銘」이라 橫書되고, 碑額은 高麗國國師大華嚴宗師禪教……」로 시작되었다.

眞覺國師의 諱는 千熙이고 號는 雪山이며 興海사람이다. 제 二五代 忠烈王三三年(一一三〇七)에 出生하여 一三歲에 削髮하였으며 元에 留學하고 귀국후에는 雉岳에 隱居하였다. 禑王一一年(一一三五)에 小白山에서 七六歲로 入寂하였다.

碑의 建立年代는 碑文에 따르면 禡王十二年(一三八六)이며 牧隱 李穡의 撰文으로 되었다. 碑裏面에는 門徒와 發願者의 人名이 刻字되었으며 碑身石은 粘板岩이고 臺石과 蓋石은 花崗石으로 되었다.

이 碑와 유사한 形式은 僊鳳寺大覺國師碑나 神勒寺에 있는 二개의 石 碑 등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다.

七長寺 慧炤國師碑 (도판 27)

京畿道安城郡二竹面七長里

寶物 四八八號 身石高三、九八m

幅一、二八m 高麗(文宗一四年、一〇六〇)

題額은 「贈諡慧炤國師碑銘」八字를 가로 二段으로 碑身石 上部에 刻字 하고, 그 아래에 二줄을 그어 碑文과의 境界線을 만들고 가는 글자로 碑文을 새겼다. 龜趺의 龜甲은 正六角形으로 彫飾하고, 龜頭部와 龜尾部 그리고 前後面 全部를 波狀紋으로 刻出하였다. 짧은 목에는 옆으로 크고 작은 비늘무늬를 調和있게 彫出하였다. 龜甲中央의 碑座는 낮게 彫出하고 上端에 伏蓮瓣紋樣帶를 돌리고, 그 위에 碑身石을 세웠다. 碑身石은 現在 中間部分에서 折斷되는 등 甚한 破損을 입고 있다. 남아 있는 碑身石 兩側面에는 遊戯하는 듯한 雙龍이 上下로 길게 彫出되었으며 二마리의 龍사이에는 큰작한 寶珠가 조식되었다. 螭首는 蟠龍과 雲紋이 混用되어 簡略한 手法을 보인다.

慧炤國師의 俗姓은 李氏, 高麗 四代 光宗二三年(九七二)에 出生하여, 竹長 漆長寺의 融哲大師에 師事하고, 靈通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제 一代 文宗八年(一〇五四)에 八三歲로 入寂하니, 文宗은 「慧炤」라 贈諡하였다. 碑文은 金顯이 撰하고, 閔賞濟의 書이다.

이 碑가 서 있는 七賢山은 廣州山脈의 南쪽 끝에 位置하였는데, 이 山脈에는 法泉寺를 비롯하여 居頓寺址, 興法寺址, 高達寺址 등의 高麗初의 佛敎遺蹟이 散在하고 있다. 이 塔碑의 形狀이 法泉寺의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또한 地理的 與件과 關連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碑身 兩側

面의 雙龍과 唐草紋 등의 彫飾은 奉先弘慶寺碑碣에서 보이는 手法과 時期的으로도 密接한 關係가 있는 高麗初의 優作이라 하겠다.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碑 (도판 28)

江原道原城郡富論面法泉里

國寶五九號 高四、五五m

碑身高二、九七m 碑身幅一、四二m 高麗(宣宗二年一〇八五)

塔은 日政 때 日人들에 의해 日本으로 건너갔다가 그後 되돌아와서 景福宮內에 세워져 있다. 龜趺는 넓고 地臺石위에 놓였으며,

밑에는 雲紋으로 彫飾되었으며, 龜頭의 목은 길게 直立하여 前面을 향하고 있다. 목에는 물고기비늘이 表現되었고, 등에는 方形區劃안에 따라 龜甲紋을 새겼으며, 그안에 「王」字가 陽刻되었다. 등 중앙에는 簡潔한 伏蓮으로 碑座를 나타내고 碑身을 세웠다. 碑身의 外周에는 寶相唐草紋을 彫飾한 것이 特徵이고, 碑身의 兩쪽 側面에 雙龍을 彫刻한 것도 獨特한 樣式이다. 螭首 네귀둥이의 轉角은 우뚝 솟았고, 귀꽃을 달았는데, 그 形態는 通式에서 벗어났다. 螭首의 中央에 相輪部를 마련하고, 蓮花가 彫刻된 三層의 寶珠를 얹었다. 塔의 奇拔한 樣式과 더불어 高麗石碑의 代表가 될만하다.

智光國師의 俗名은 海麟으로 高麗成宗三年(九八四)에 出生, 穆宗三年(九九九)에 龍興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德宗朝에는 三重大師의 號를 받았고, 第一代 文宗一二年(一〇五八)에 奉恩寺에서 國師에 올랐으며 文宗二一年(一〇六七)에 八四歲로 原州 法泉寺에서 入寂하였다. 碑文은 鄭惟產의 撰에 安民厚의 書이고, 表面에 碑銘과 裏面에 陰記가 있다. 碑를 세운 것은 碑文末尾에 「太安元年歲在乙丑仲秋月日樹」라 있는데, 太安은 遼의 道宗代의 年號로 그 元年是 高麗宣宗二年(一〇八五)이 된다.

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碑 (도판 29)

江原道原城郡富論面鼎山里

寶物 七八號 碑身高二、四五m 幅一、二六m 龜趺高一、二m 高麗

題額은 「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이라 되었고 龜趺와 地臺石을 一石으로 하였다. 龜趺의 龜頭는 짧은 목에 입을 다물고 龍頭化되었으며, 양쪽 귀뒤에 큰 지느러미를 귀같이 달아 特異하다. 龜甲은 重疊된 正六角形의 甲紋으로 되었으며, 各龜甲紋內에는 卍字와 蓮花紋이 하나씩 交替로 陽刻되었다. 그리고 龜甲周緣帶에도 花紋과 비슷한 紋樣을 같은 간격으로 彫刻하였다. 龜甲中央의 碑座에는 眼象을 陰刻하고, 그위에 碑身을 올려 놓았다. 碑身上端에 마련한 螭首에는 帳幕같은 것을 下端에 드리우고, 그위로 一段의 花紋帶와 같은 紋樣帶를 돌리고 있다. 雲紋과 調和되게 彫飾한 螭首는, 힘차게 彫刻되었으며 中央에 있는 火焰에 싸인 寶珠를 向해, 구슬을 다루는 듯이 造出하여 그 華麗함을 한층 더하였다. 그리고 螭首의 中央에 마련한 題額 주변도 雲紋帶로 彫飾하고, 그위로 또 다른 火焰에 싸인 寶珠를 나타낸 것은, 塔碑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華麗함을 더하는 技法이라 하겠다. 全體의인 造形手法은 形式化된 高麗石碑의 特色을 보인다. 圓空國師는 高麗初의 名僧으로 俗姓은 李氏, 諱는 智宗, 字는 神則이다. 高麗 太祖一三年(九三〇)에 出生하여 第四代 光宗二年(九七〇)에 靈通寺에서 具足戒를 받았으며, 四〇歲에 國師가 되었다. 第八代 顯宗九年(一〇一八)에 原州 賢溪山居頓寺에서 八九歲로 入寂하니 顯宗은 諡號를 「圓空國師」로 塔名은 「勝妙」라 내렸다. 碑文에 따르면, 崔冲의 撰에 金巨雄의 書인데 字徑은 一、八cm이다.

眞空大師塔碑龜趺와 螭首

(도판 30)

江原道原城郡地正面安昌里

寶物 四六三號 龜趺高 七五cm
螭首高 九九cm 高麗(太祖 二三年, 九四〇)

碑身石은 破壞되어, 現在 景福宮 勤政殿廻廊에 옮겨 保管하고 있으며 原所在地인 興法寺址에는 龜趺와 螭首만이 原形이 잘 남아 있다. 龜趺

의 龍頭化된 龜頭는 口에 如意珠를 물었고, 짧은 목이 直立하였다. 地臺石과 一石으로 造成되었는데 四足은 힘차게 臺石을 딛고 있다. 등위의 六角形龜甲紋은 안에 花紋을 彫飾하였고, 龜甲돌배에는 幅 넓은 素文帶를 돌렸다. 龜甲中央에 마련된 長方形의 높직한 碑座위에 놓인 螭首의 正面中央에 篆額이 마련되었는데, 그 안에 二行으로 「眞空」「大師」의 四字가 새겨졌다. 이 篆額을 中心으로 二마리의 雲龍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 左右와 側面에도 雲龍을 서로 맞서는 자리에 配置하였다. 碑題는 「高麗國原州……」까지는 判讀되고 碑文 또한 「臣崔光胤奉教集太宗文皇……」만 判讀된다. 碑文은 大師의 入寂後 太祖가 親히 글을 지었다고 傳하며, 文臣 崔光胤이 唐太宗의 글씨에서 集字한 것이다.

眞空大師의 法諱는 忠湛, 俗姓은 金氏로 新羅 景文王九年(八六九)에 出生하였다. 長純禪師에 師事하고, 第五一代 眞聖女王三年(八八九) 武州 靈神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後 入唐하여 淨圓 밑에서 修道한 後 第五二代 孝恭王 때에 歸國하여 王師가 되었다가 太祖二三年(九四〇)에 入寂하였다.

普賢寺 朗圓大師悟眞塔碑

(도판 31)

江原道溟州郡城山面普光里

寶物 一九二號 高一、八八m
幅〇、九八m 厚〇、二m 高麗(太祖 二三年, 九四〇)

이 碑는 朗圓大師의 入寂一〇年後인 高麗太祖二三年 七月 三〇日에 建立되었고 碑文은 仇足達이 썼다. 方形의 臺石위에 龍頭化한 龜頭를 갖추었으며, 등은 二重의 六角龜甲紋으로 덮었다. 등 中央의 높은 碑座는 雲文으로 四面을 장식하고 碑身을 세웠다. 碑身의 上端에는 仰蓮받침과 雙龍이 中央의 寶珠를 向해서 서로 다루는 듯이 透刻되었다. 螭首中央에는 塔에서와 같이 覆鉢과 一段의 寶輪을 具備하고 特異하게도 火焰에 싸인 寶珠를 엮었다. 碑文에 따르면 朗圓大師는 新羅末 高麗初의 僧으로 俗姓은 金氏이고, 諱는 開淸이며 辰韓 鷄林人이다. 新羅 第四二代 興德

壬八年(八三四)四月一五일에 出生하여 一三歲에 華嚴寺의 正行法師에 師事하고, 高麗 太祖 一三年(九三〇) 九月二四日 九六歲로 入寂하였다. 太祖는 「朗圓」이라 諡號를 내리고 塔名은 「悟眞」이라 하였다.

碑文에 大中末年(憲安王三年 八五九) 康州 嚴川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大中은 一三年으로 끝났고 示滅年 九六歲와도 합치안되므로 大中八年은 太和八年을 잘못 記錄한 것 같다. 그리고 示滅年으로 기록한 同光八年은 高麗太祖 一三年(九三〇)에 해당되는데, 同光은 三年으로 끝나고 天成을 지나 長興元年이 되는 것을, 同光이 더 계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八年으로 연장 기록한 듯하다.

興寧寺 澄曉大師塔碑

(도판 32)

江原道寧越郡水周面法興里

寶物 六一二號 高三、九六m 惠宗 一年(九四四)

地臺는 方形에 가깝고, 地臺石과 龜趺는 一石으로 되었다. 龜頭는 龍頭化한 形狀을 하였고 直立化하였으며, 口에는 如意珠를 물고 있다. 龜甲은 半球形에 가깝고, 頂으로 된 六角의 龜甲紋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各龜甲안에는 子房이 있는 四葉의 花紋이 彫飾되었다. 龜甲紋 사이에는 一條線을 더 陽刻하였다. 方形의 臺石을 닮고 있는 龜趺의 四발은 五 발가락이 부드럽게 나타나었다. 龜甲中央에 長方形의 碑座를 마련하고, 各面에 流雲紋을 彫飾하였으며, 碑座上面에는 佛眼觀을 조각하였다. 碑身은 前後面을 磨研하고 三六行의 碑文을 새겼는데.

有唐新羅國師子山□□□□教諭澄曉大師寶印之塔碑銘并序……………

天福九年歲在甲

辰六月十七日立 崔奐規刻으로 되었다. 天福 九年은 高麗 惠宗 元年(九四四)이 된다.

螭首의 아랫면에는 碑座와 함께 三段 괴임을 마련하고 둘레에 複葉의 仰蓮을 새겼다. 側面의 四모서리에 龍이 各各 한 마리씩 있는데 머리는 모두 안쪽을 向하였다. 螭首 윗면은 覆鉢形이고 그 위에 相輪이 놓였

다. 正面中央의 方形篆額에는 세로 二行으로 「故澄曉」、「大師碑」라 篆字로 陽刻하고, 側面 上端에는 火焰에 싸여 있는 寶珠를 갖추었다.

奉先弘慶寺碑碣

(도판 33)

忠南天原郡成歡邑大弘里

國寶 七號 現高一、八m 碑身高一、九四m 同幅 一m 高麗(顯宗 一七年, 一〇二六)

高麗 第一八代 顯宗 一二年(一〇二二)에 創建된 奉先弘慶寺의 事蹟碑이다. 龜趺와 螭首를 갖추었으며 怪獸의 形狀을 한 龍頭化된 龜頭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點이 特異하다.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은 날개로 龜頭의 左右를 장식하였고, 彫刻手法 또한 素朴하여 高麗時代의 特徵을 보이고 있다. 등의 龜甲中央의 仰蓮과 伏蓮으로 된 높직한 碑座 위에 碑身을 세웠다. 碑身에는 전면에 비두리를 돌리고 그 안에 碑文을 새겼고, 碑身바깥 둘레에 唐草紋을 彫飾하고 兩側面에는 寶相華紋이 彫刻되었다. 碑身 위쪽에 奉先弘慶寺碣記라 橫書한 점이 高麗石碑의 通式을 따랐다. 螭首는 높은 山形으로 圖式化된 雲龍紋이 彫刻되었으며 現存하는 石碑中에서 事蹟碑로서는 代表가 될만한 優作이다. 立碑의 年代는 末尾에 「大平紀曆之第六年夏四月日謹記」라 있는데 大平은 遼 成宗代 年號로 그 六年은 高麗顯宗 一七年이 된다. 字體는 楷書로 되었으며, 崔冲의 撰에 白玄禮의 書로 되었다.

扶餘 普光寺重剎碑

(도판 34)

元 忠南扶餘郡林泉面加新里

現 國立扶餘博物館 高一、九七m 寶物 一〇七號 高麗末恭愍王 七年(一三五八)

碑는 臺石과 蓋石을 높고, 圭形의 身石만이 남아 있다. 碑題는 「高麗 林州大普光禪師重剎碑奉訓大夫國子監 丞危素撰……………」으로 시작되고 撰, 篆書者와 書者를 記刻하였다. 瑞峰寺玄悟國師碑, 寶鏡寺圓眞國師碑, 億

政寺大智國師碑 등과 같이 高麗末朝鮮初의 碑石樣式을 따라 上部에 귀 접이한 碑이다. 碑身石 가장자리는 唐草紋을 둘러 彫飾하였고, 題額은 「高麗國林州大普光禪師碑」라고 篆書되었다.

圓明의 諱는 冲鑑, 字가 絶照, 號는 雪峰이며 中國의 吳楚人으로 일찌기 뜻을 高麗에 두고, 林州 普光寺에 들어가 寺名을 크게 일으켰다. 至元 一二年(一二七五) 示滅하기에 앞서 門徒들에게 立碑와 造塔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六五歲로 入寂하였다. 碑의 建立은 國師의 入滅 六年後인 至正 一八年에 門徒들이 뜻을 모아 세웠다.

碑石은 片磨岩으로 되었고, 裏面에는 「乾隆十五年庚午六月二十日 改刻設立」의 記刻도 있다. 乾隆 一五年은 朝鮮 英祖 二六年으로 一七五〇年이 된다.

瑞山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도판 35)

忠南瑞山郡雲山面龍賢里
寶物 一〇六號 高四、二五m 碑身幅 一、二m 高麗 景宗 三年(九七八)

普願寺는 新羅時代의 創建이나, 現在는 廢寺址에 國師의 浮屠를 비롯하여, 五層石塔, 幢竿支柱, 石槽等의 優秀한 石造物들이 남아 있다. 碑는 高大하여, 장중한 느낌이 들며 龜趺의 龜頭는 龍頭化되었고, 口에는 如意珠를 물고 있다. 몸체는 龜頭에 比하여 倭小한 느낌이 들며, 龜頭는 圖式化되었다. 龜趺의 등에 마련된 碑座 또한 아무런 紋樣도 없이 簡素하다. 碑身 위에 마련된 螭首에는 雲文과 조화되게 造成한 蟠龍四마리가 中央을 向해 高개를 쳐들고, 구슬은 다투는 듯이 彫刻되었다. 龜趺에 比해 螭首가 過大하게 造形되어서 鈍重한 感覺을 준다. 螭首의 中央에 長方形의 題額을 마련하였으며 「伽倻山普願寺故國師制贈諡法印三重大師之碑」라 篆書로 된 碑名이 있다.

法印國師는 乾寧 七年(新羅 第五二代 孝恭王 四年 九〇〇)에 出生하였는데 俗姓은 高氏, 廣州人으로 北漢山莊義寺에서 具足戒를 받았고 高麗 世四代 光宗 二六年(九七五)에 伽倻山寺에서 入寂하였다. 國師의 入

滅 三年後에, 景宗은 그를 「法印國師」라 追諡하고 塔名은 「寶乘」이라 하였다. 碑文은 翰林學士 金廷彦이 撰하고 書者는 儒林學士 韓允이며 字徑은 一、五cm, 歐體 楷書이다

中原 淨土寺 法鏡大師慈燈塔碑 (도판 36)

忠北中原郡東良面荷川里
寶物 一七號 高三、一五m 高麗太祖 二六年(九四三)

碑의 石材는 花崗石과 大理石으로 되었고, 方形의 基臺石 위에 龜趺를 마련하였다. 龜頭는 龍頭化하였는데, 눈과 코는 寫實的으로 나타나었고, 목은 짧으며 口에는 如意珠를 물었다. 목과 가슴에는 거부의 모습을 나타내었고 六角龜甲紋은 各 龜甲안에 꽃무늬가 彫飾되었는데 등全體를 덮었다. 龜甲中央에 마련된 碑座는 下端를테를 卷雲紋으로 彫飾하고 그 안에 臺座를 마련하여 前後面과 左右側面에 眼象을 새기고, 上面에 蓮華紋을 돌렸다. 碑身은 長方形을 하였고, 前面에 本文을, 後面에는 陰記를 새겼다. 螭首는 아랫면 돌레에 蓮花를 새기고, 二段받침이 낮게 마련되었다. 題額에는 두 줄로 「法鏡」「大師」의 四字를 새겼고, 篆額의 돌레는 卷雲紋을 새기고, 上端部에 寶珠를 彫刻하였다. 螭首의 雲紋과 混合된 雙龍은 서리서리 얽힌채 題額을 中心으로 하여 서로 맞서고 있으나, 이 蟠龍들은 龜頭에서와 같이 如意珠를 물고 있어 特異하다. 대체로 龜趺와 螭首는 硬直한 느낌이 들고, 碑座는 退化하여 낮게 되었다.

碑文에 따르면 法鏡大師는 新羅末 高麗初의 名僧으로 法諱는 玄暉이고, 俗姓은 李氏이다. 世四九대 憲康王 五年(八七九)에 出生하여 靈覺山寺의 深光大師에게 師事하였고, 世五二대 孝恭王 二年(八九八) 伽倻山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孝恭王 九年(九〇五)에 入唐하여 修學한 後 世五五대 景哀王 二年(九二五)에 歸國하자 王은 그를 國師로서 극진히 禮遇하였다. 高麗 太祖 二四年(九四二)에 入寂하니 시호를 法鏡, 塔名을 慈燈이라 하였다.

碑는 太祖 二六年(天福 八年 九四三) 六月 五日에 세웠는데 現在 碑面 여러 군데에 彈痕이 있다.

鎮川 蓮谷里石碑 (도판 37)

忠北 鎮川郡 鎮川邑 蓮谷里
寶物 四〇四號 高三、六m 高麗

地臺石과 龜趺는 一石으로 되었다. 龜頭는 馬頭化되었는데, 磨損이甚하여 異常한 形狀이며 直立하였다. 顔面의 磨損은 後代의 損傷으로 보인다. 龜甲紋은 通式을 따라 六角形이고 윗면에 碑座를 마련하였으며, 그 옆면에 眼象을 새겼다. 윗면에 蓮華紋이 周回되었고, 三段의 碑體로 碑身을 받았다. 碑身에 銘文이 없어 白碑라고도 하니, 이처럼 無記銘인 緣由를 알 수 없다. 螭首 아랫면에 三段받침이 있으며, 碑座 위의 괴임대와 對稱이 된다. 螭首 正面의 方形額에도 篆題가 없다. 篆額 둘레에 굵은 卷雲紋이 둘러지고 그 左右엔 서로 마주선 龍頭가 새겨졌다. 龍頭 옆면과 頂上에도 雙龍이 배치되었다. 篆額左右의 雙龍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나, 다른 龍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처럼 螭首는 蟠結九龍이 조각되어 優秀한 技法을 보이고 있으며, 月光寺 圓朗禪師碑의 技法과 유사하다. 頂上에 圓形의 寶珠가 있으며, 銘文이 없어 建立年代는 확실치 않으나 造形形式으로 보아 高麗初期로 推定된다.

永同 寧國寺 圓覺國師碑 (도판 38)

忠北 永同郡 陽山面 樓橋里
寶物 五三四號 高三、七一m 高麗 明宗 一〇(一一八〇)

地臺石은 四枚의 長大石으로 구성되었고, 一石으로된 龜趺가 그 위에 놓였다. 龜甲은 六角形이고, 등 中央에 長方形의 碑座가 마련되었다. 龜趺의 四足은 작은편이고, 꼬리는 龜甲에까지 높이 올라 붙었는데 큼직하다. 꼬리모양이 毛髮같이 여러 갈래이고, 龜甲의 三山形 귀꽃의 彫刻은 注目된다. 목은 곧게 치를었는데, 주름이 있고, 碑座의 側面左右에

는 唐草紋을 彫飾하였다. 대체로 典型的인 高麗樣式이며 鈍重한 느낌이 든다. 碑身은 粘板岩으로 되었는데 破損이甚하며, 上端에 突起를 마련하여 螭首를 엮게 하였다. 螭首는 倒壞된 것을 龜趺 옆에 수습해 놓았는데 측면에는 卷雲紋을 조각하였다. 表面의 中央에 長方形의 篆額을 陽刻하고 三行의 六字로 「圓覺」「國師」「碑銘」이라 새겼다. 螭首 왼쪽 左右에 한쌍씩 모두 四龍이 조각되었으며, 위에는 寶珠가 있었는데 缺失되었다. 碑文 둘레에는 寶相唐草紋을 돌렸고, 銘文은 楷書體로 縱書되었으며, 뒷면에는 陰記가 있다. 建立年代가 確實한 重要한 塔碑이다.

陝川 般若寺 元景王師碑 (도판 39)

原 慶南 陝川郡 伽倻面 舊源里
現 陝川海印寺境內
寶物 一二八號 高二、三m 幅 一、二m

碑는 般若寺址에 있던 것을 解放後 海印寺境內로 옮긴 것이다. 碑身 아래 部分이 破損된 채로 오랜동안 두었던 것을 一九六八年에 現位置로 옮겨 세우고, 碑閣도 新築하였다. 碑의 題額은 「贈諡元景王師碑銘」의 篆書이며 碑文은 「高麗國大華嚴業第四代王師歸法水兩寺住持悟空通慧僧統 詔諡元景大和尚碑銘并序」로 시작되었다. 碑石의 형상은 龜趺, 碑身石, 蓋石 등의 모두가 平薄한 것이 特色이며, 龜部는 重廓甲紋과 아울러 형상이 硬直되었다. 간략하게 造形된 屋蓋形의 蓋石은 退化된 時代相을 잘 나타낸 一二世紀以後의 高麗塔碑 形式을 보이고 있다. 碑文은 仁宗 때의 三國史記 著者 金富軾의 兄인 金富侂가 글짓고, 李元符가 글씨를 썼다. 碑文은 楷書이며 溫和한 虞世南體이다. 新羅以來의 刻字가 거의 歐陽詢體의 계열인데, 이 碑는 그것을 벗어났으니 書史研究에 좋은 資料가 될만하다.

元景王師의 俗姓은 申氏이고 第一代 文宗 四年(一〇五〇) 出生하였다. 靈通寺의 景德國師와 大覺國師에게 師事하였으며, 大覺國師를 따라

宋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第一五代 肅宗 때 僧統이 되었으며, 王師가 된 後는 歸法寺에 머물다가 睿宗 一四年(一一一九)에 七〇歲로 入寂하니 王은 諡號를 「元景」이라 내렸다.

梁山 通度寺國長生石標

(도판 40)

慶南梁山郡下北面白鹿里

高一、六二m 幅五七cm 寶物七四號 高麗 宣宗二年(一〇八五)

이 石標는 通度寺의 東南 약 四km 되는 地點에 있으며, 通度寺의 境內를 표시한 것으로 앞면에 다음과 같은 四줄의 글이 새겨져 있다.

「通度寺 孫仍川 國長生 一坐段寺 所報尙書所部 乙丑五月日牒前 判兇如 改立 令是於爲了等以立 大安元年乙丑十二月 日記」

이 吏讀文은 「通度寺 孫仍川 國長生 一坐의 單은 寺所報尙書戶部乙丑五月日牒前判兇이 改立시키도록 말해왔음에 依하여 세우다」로 譯讀이 된다. 「國長生」이라는 名稱은 아마도 「國命에 의하여 建立한 長生」이라는 뜻일 것이다. 高麗 이전에는 흔히 「長生」으로 表記되고 朝鮮時代로 내려오면 흔히 「長柱」로 표기되는 이 「장승」들에는 대개 部落입구에서의 防厄, 里程標, 境界標 등 서너가지 구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 通度寺와 같은 寺刹의 長生은 「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의 「寺之四方山川裨補條」에 「四方長生標內田畚土地也 右石碑石蹟塔排長生標內 曾無公私他土也」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石標는 境界標구실에 風水思想을 접 들인 防厄의 구실을 부여하고 있는 면도 아울러 느낀다. 그리고 「前判 改立시키도록 말해왔음에 의하여 세운 것」이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그 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長生石標가 세워져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時代에는 國家에서 寺刹에 土地를 給與하는 일이 많아서, 寺刹과 一般村落들을 區分하는 境界線 표시로 長生을 세운 記錄도 있고 또 寺刹境內라는 神聖區域 표시의 구실도 해왔을 리라고 본다.

아마도 通度寺 創建인 六四六年後부터의 일로 짐작된다.

泗川 埋香碑

(도판 41)

慶南泗川郡昆陽面興士里

高一、六m 寶物六一四號 高麗 禑王十三年(一一三八七)

長方形으로 된 自然石에 碑文을 새겼으므로 碑面은 고르지 못하다. 글자의 크기가 一定하지 못하고, 井間도 없어서 세로와 가로가 맞지 않으며 字數도 行마다 다르다. 碑文은 一五行 二〇二字를 새겼는데, 年代와 干支銘이 확실하다. 碑題는 「千人結契埋香願王文」이라 하고, 末尾에는 「洪武二十年丁卯八月二十日埋」라 하여 碑를 세운 年代와 目的을 알 수 있다.

高麗末의 高僧 達空이 글을 짓고, 守安이 글씨를 쓰고 金用이 刻字하였다. 碑文의 內容은 四千一百人이 結契하여 來世의 행운을 축원하며 임금의 萬世無疆과 國泰民安을 기원한 것이다. 비록 臺石과 蓋石을 못 갖추고 또 自然石을 이용한 形態이나 年代가 확실한 高麗의 石碑로 重要하다.

「埋香碑」가 서있는 곳을 「상무메미」라고 하는데, 「상」이란 慶南方言으로 「香」을 뜻하고 「무메미」는 「문은 곳」을 뜻한다고 한다.

慶州 皇甫里 孝子孫時楊旌閭碑

(도판 42)

慶北 慶州市 皇甫里

高一、九四m 幅〇、四四五m 厚〇、三四九m 寶物六八號

碑表面에 字徑 三〇cm의 「孝子里」三字를 깊게 새긴 方柱形花崗石碑이고 碑의 臺石과 蓋石은 없다. 碑의 뒷면에는 五줄의 楷書體로 된 碑文이 字徑 五cm의 큰글자로 새겨졌다. 碑文의 마지막 줄인 五째 줄 끝부분에는 「時大定二十二年壬寅十二月 日 東京留守掌書記□□□蔡靖誌」라고 있다. 蔡靖은 書者가 아닌 撰者로 짐작된다.

高麗石碑는 대체로 三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碑는 특이하게도 一般石碑 形式과 다른 方柱로 되었다. 碑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一) 里中有學子孫其姓時楊其名□□□□其父允伯端坐而葬于

- (二) 州南冷泉寺之北山廬于墓隱守之三年服門而去及其母死歸葬金
 - (三) 山中谷守墳又如是以盡人子事親之道焉州家具是狀以聞其留守
 - (四) 留守以聞 上嘉其孝行旌表門閭使□□□□爲後勳云
 - (五) 時大定二十二年壬寅十二月 日東京留守掌書記□□□蔡靖誌
- 碑의 建立은 碑文에 보이는 바와 같이 「大定二十二年」인데 고려 明宗 一二年(一一八二)이 된다.

漆谷 僊鳳寺 大覺國師碑 (도판 43)

慶北漆谷郡北三面崇島洞

高·螭首○、五六m 龜趺臺石 一、九七m 幅 一、八二m 寶物 二五一號 高麗(肅宗年間、一二世紀初)

一般形樣式과는 다르게 龜趺가 생략되었는데 伏蓮과 仰蓮을 刻出한 長方形의 臺石위에 碑身을 세웠다. 碑身上的 螭首는 屋蓋形으로 돌레에 唐草紋樣帶를 얹게 彫飾하였다. 碑文은 表面과 裏面에 모두 새겼고, 題額은 「天臺始祖大覺國師碑銘」이라 篆書되었다. 또 碑額은 「南嵩山僊鳳寺海東天臺始祖大覺國師之碑銘并序」라 되어 있으며 林存이 짓고, 篆書와 글씨는 僧麟이 썼다. 碑文은 歐體楷書이며 陰記는 行書體 二五行이 새겨졌는데, 大覺國師의 碑는 開豐 靈通寺에도 一基가 傳한다. 碑의 造形은 龜趺, 螭首가 省略되었으며 般若寺 元景王師碑들과 함께 退化된 類型이라고 하겠다.

大覺國師는 一一代 文宗의 네째 아들로서 文宗九年(一〇五五)에 出生하였다. 諱가 釋煦이고 字는 義天인데, 一歲때 出家하여 靈通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一三代 宣宗一年(一〇八四) 宋에 건너갔다가 宣宗三年에 환국하여 華嚴과 天臺兩宗의 經典에 深奧한 研究를 하였다. 高麗時代의 教宗과 禪宗을 禪敎一致로 統合하여 高麗佛敎의 융합을 實現하였으며, 天臺宗의 始祖가 되었다. 肅宗六年(一一〇二)에 四七歲로 入寂하니 王은 國師로 封하고 諡號를 「大覺」이라 내렸다.

聞慶 鳳巖寺 靜真大師圓悟塔碑 (도판 44)

慶北聞慶郡加恩邑院北里

寶物 一七二號 高二、七三m 高麗 光宗一六年(九六五)

이 塔碑는 龜趺와 螭首의 形式等이 高麗初期石碑에서 나타나는 一般形式을 따랐다. 우리나라의 碑石이 지의 花崗石인 것과 다르게 이 碑는 靑石으로 된 것이 특이한데 鳳巖寺에는 이 碑 外에 新羅時代의 智證大師寂照塔碑도 있다. 龜趺등의 碑座는 長方形이고, 매우 크다. 碑身위의 螭首에는 火焰寶珠를 中心으로 서리서리 얽힌 蟠龍이 雲紋과 調和를 이루었고 方形의 題額들레도 雲紋으로 장식하였다. 螭首의 下端은 華麗하게 四邊을 仰蓮으로 돌렸다. 龜趺의 龜頭는 목이 짧고, 龍頭化된 모습이어서 退化된 느낌이 든다. 등의 龜甲에는 六角形의 重疊甲紋이 조각되었고 各甲紋안에는 花紋一개씩이 彫飾되어 더욱 華麗해 보인다. 全體의 細部의 表現이 強한 彫法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境內의 智證大師寂照塔碑가 이 碑보다 四一年 앞서는 것이니, 이 碑의 製作에, 본이 된 듯하다.

靜真大師는 新羅末 高麗初의 高僧으로 諱는 號讓이고 俗姓은 王氏이다 公州人으로 新羅 五二代 孝恭王四年(九一一)에 入唐하여 留學하였다가 第五代 景明王八年(九二四)에 歸國하였다. 第五代 景哀王으로부터 스승의 禮遇를 받고, 高麗朝에서도 太祖 惠宗 등이 厚하게 대접하였다. 光宗一六年(九六五)에 大師가 七九歲로 入寂하자, 王은 諡號를 「靜真」이라 내리고 塔名은 「圓悟」라 하였다. 碑文은 李夢游가 지었고, 글씨는 高達寺 元宗大師慧眞塔碑를 쓴 張端說이 썼다.

軍威 麟角寺 普覺國師碑 (도판 45)

慶北軍威郡古老面華北里

高一、八m 寶物 四二八號 高麗 忠烈王二二年(一二九五)

이 塔碑는 甚한 損傷으로, 碑文은 判讀할 수 없는 狀態이다. 그러나 江原道 平昌郡五臺山 月精寺에 所藏된 寫本에 따르면 「元貞元年乙未」

즉 高麗 忠烈王 二二年(一一九五)에 碑를 建立하였음을 알겠다.

清道 雲門寺 圓應國師碑 (도판 46)

慶北 清道郡 雲門面 新院里

高一,三 m 幅 〇,九一 m

寶物 三一六號 高麗(仁宗年間, 一二世紀)

현재 이 碑는 螭首가 缺失되었고, 龜趺는 破損된 殘片이 散在하며 三 조각으로 切斷된 碑身石만이 復元되어 남아 있다. 碑面上部에 方廓題額을 마련하고 「圓應國師碑銘」 六字를 楷書로 縱書하였다. 碑身둘레의 花文帶가 남아있을 뿐 그 造形的 特色은 알기 어렵다.

圓應國師의 俗姓은 李氏이고, 諱는 學一, 字는 逢渠이며 第一代 文宗五年(一〇五一)에 出生하였다. 眞藏律師에게서 剃髮하고 一三歲에 具足戒를 받았으며, 第一三代 宣宗二年(一〇八五)에 宋에 건너가 天臺教 觀을 배우고, 二年後에 귀국하였다. 第二六代 睿宗元年丙戌(一一〇六)에 重大師가 되었고, 同王四年에 大禪師가 되었다. 仁宗이 即位한 後先王의 뜻을 이어 王師로 冊封하였다. 仁宗二年 甲子 二月 九日에 雲門寺에서 九三歲로 入寂하니, 王은 다음해에 國師로 禮冊하고 諡號를 「圓應」이라 내렸다.

碑를 세운 年代는 확실하지 않으나 仁宗二二年 以後로 推定된다. 碑文은 字徑 一,五 cm의 行書이며, 題額은 字徑 一〇,五 cm의 行書이고 碑材는 片麻岩이다.

迎日 寶鏡寺 圓眞國師碑 (도판 47)

慶北 迎日郡 松羅面 中山里(寶鏡寺境內)

寶物 二五二號 碑身高 一,八三 m 幅 一,〇四 m 厚 〇,一七 m

龜趺 花崗石, 碑身 砂岩

螭首가 없는 碑로서 碑身上端의 兩角을 귀접이 한 圭首形이며 龜趺와 臺石이 單一石으로 되었다. 碑座에는 單葉 四四蓮瓣이 刻出되었다. 龜

頭는 龍頭化되었고 口에는 如意珠를 물고 있으며, 등의 龜甲은 六角形의 甲紋안에 「王」字를 整然하게 刻出하였다. 題額은 「圓眞國師碑銘」이라고 篆體로 橫書되었고(字徑 七,六 cm) 碑題는 「高麗國寶鏡寺住持大禪師贈諡圓眞國師碑銘并序」로 시작되었는데, 書者에 관하여는, 지금 「李」字以下가 判讀할 수 없으나 東國輿地勝覽에는 「有高麗李松老所撰圓眞碑」라 하고, 大東金石書에도 「寶鏡寺圓眞國師碑金孝印書李松老文」이라 있다. 碑身둘레에 唐草紋樣을 장식한 것이나 碑身兩端에 귀접이 한 것 등은 高麗中期以後부터 나타나는 形式의 하나라고 하겠는데, 이같은 例로는 下代에 屬하는 普光寺重創碑(恭愍王 七年, 一三五八)와 億政寺大智國師碑등을 들 수 있다.

國師의 俗姓은 申氏이고 諱는 承迥이며 金山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第二二代 康宗三年(一一二三)에 三重大師가 되었고, 二三代 高宗八年(一一二二)에 五一歲로 入寂하였다. 王은 國師를 追贈하고 諡號를 「圓眞」이라 내렸다.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遍光塔碑 (도판 48)

全南 康津郡 城田面 月下里

高一,三五 m 寶物 五〇七號 高麗 定宗元年(九四六)

이 碑는 先覺大師의 入寂한지 二八年後에 建立한 것이다. 傳統的인 形式을 따라 地臺石과 一石으로 된 龜趺와 碑座위에 碑身과 螭首를 갖추었다. 頭部에는 兩角을 뚜렷하게 彫刻하고 口에는 如意珠를 물었다. 두 귀의 모습은 龍의 귀와 같이, 컷털이 날리는 것처럼 彫刻되었다. 龜趺의 등에는 六角龜甲紋을 陽刻하고, 그 中央에는 碑座를 마련하고, 그 前後面에는 寶雲紋을 彫刻하였으며, 兩側面에는 眼象을 陰刻하였다. 螭首는 上下 二石으로 겹쳐 쌓았는데, 方形의 篆額을 螭首中央에 마련하였으나, 磨滅이甚하여 判讀이 곤란하다. 螭首는 아랫면이 複瓣蓮華紋을 조각하고, 둘레에는 蟠龍雲紋과 雙龍紋을 조각하였다. 撰者인 崔彥擣와 書者 柳勲律의 官等姓名도 記銘되었다.

大師의 法諱는 迥微이고, 俗姓은 崔氏이다. 新羅 景文王四年(八六四)八月一日에 出生하여 新羅 第四九代 憲康王 八年에 華嚴寺에서 具足戒를 받고 普照禪師에게 禪法을 배웠다. 後에 入唐하였다가 第五二代 孝恭王 九年(九〇五)에 歸國하여 康津 無爲寺에 住錫하다가 景明王二年(九一八)에 入寂하였다.

碑文끝에 「開運三年……戊午立」이라 碑세운 해가 기록되었는데 定宗 元年(九四六)이 된다.

康津 月南寺址石碑

(도판 49)

全南康津郡城田面月南里

寶物 三一三號 高三、五八m 高麗(成宗代)

高大한 石碑이나 碑身은 破損과 磨滅이 甚하여 碑名이나 碑文을 判讀할 수 없게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長方形인 臺石과 龜趺는 한돌로 造成되었고, 龜趺는 매우 寫實的이며 優秀하여 高麗石碑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될만하다. 龜趺 등의 碑座는 簡素한 雲文으로 彫飾되었고 碑身石은 片磨岩系의 石質이다. 현재 碑身의 上半部가 折斷되어 缺失되었는데 남아있는 下端部의 碑身도 碑文이 새겨진 面의 甚한 磨滅로 內容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陰記에 崔沆(?)(一〇二四) 등의 人名이 보이므로 그 建立年代는 高麗 六代 成宗代인 一〇世紀도 末葉頃으로 推定된다.

谷城 大安寺廣慈大師碑

(도판 50)

全南谷城郡竹谷面元達里

寶物 二七五號

螭首高 〇、五六m 龜趺長 一、九七m 幅 一、八二m

高麗 光宗元年(九五〇)

碑身石은 破損되어 一部 殘片만이 남아 있다. 破片의 刻字도 거의 磨滅되어 判讀이 곤란한 狀態이다. 龜趺의 龜頭는 목이 짧으나 龍頭化되

었으며 寫實的으로 造形되었고 彫飾紋樣도 아름답다. 龜趺의 등에는 六角龜甲紋이 彫飾되었고, 그 中央에 마련된 碑座의 四面에는 連續된 小용들이 모양의 무늬를 線彫하였으나 草文인지 雲文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螭首의 四方 모서리에는 蟠龍의 頭部가 彫出되었고 破損된 題額의 上部中心에는 迦陵頻伽(極樂鳥)로 보여지는 鳥形이 浮彫되었다. 이와 같은 迦陵頻伽의 彫刻은 鶯谷寺東浮屠나 北浮屠에서 그 典型을 볼 수 있다. 그리고 螭首頂上에서 가로 一列로 三個의 十字形火焰寶珠가 完全하게 彫刻되었다. 이와 같은 造形方式은 新羅末期石碑의 基本形式 위에 바탕을 두면서 裝飾과 莊嚴을 擴大多樣化한 새로운 例라고 할 수 있다. 碑題는 「有唐高麗國武州故桐裏山大安寺 教諭廣慈大師碑銘并序」로 되어 있고, 行書體이고(字徑 二、四cm) 碑文 또한 行書이다. 撰者는 孫紹인데 書者는 밝히지 않았다. 廣慈大師의 俗姓은 朴氏, 法諱는 允多이다. 新羅 第四八代 景文王四年(八六四) 慶州에서 出生, 迦耶岬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高麗太祖의 극진한 禮遇를 받았고, 開運二年(惠宗二年 九四五) 八二歲로 入寂하였다. 碑文尾에 「光德二年歲次庚戌十月十五日 鐫字」라 했으므로 碑는 光宗元年(九五〇) 大師의 沒後 五年에 세워진 것을 알겠다.

求禮 鶯谷寺 東浮屠碑

(도판 51)

全南求禮郡土旨面內東里

長 一、二m 寶物 一五三號 新羅末 高麗初

이 浮屠碑는 身石을 잃고 龜趺와 螭首만이 남아 있다. 龜趺와 螭首의 形態는 작은편인데, 龜頭는 切斷된 것을 복구하여서 原形을 잃고 있다. 碑座의 四周側面에는 雲文을 그리고, 上面周圍에는 伏蓮瓣을 彫飾하였다. 螭首는 一般形式인 蟠龍形을 생략하고 碑座에서와 같은 肉刻雲紋만을 彫出하고, 頂上部에 完全히 造形한 火焰寶珠를 刻出하였다. 龜頭는 如意珠를 물고 있는 通俗의인 龍形으로 되어서 安易한 造形技法을 보인다. 거북등의 문양은 六角甲文이 아닌 流麗한 波狀曲線의 鳥羽文으로 되

어 특이한 조식방법이며 高麗時代의 새로운造形形態를 나타내었다. 대
체로 新羅末期의樣式을 계승한 優秀作이다.

이밖에도 이 절에는 身石을 잃은 玄覺禪師塔碑와 東浮屠, 北浮屠, 西
浮屠등 같은 時代의 우수한 石造物이 남아 있다.

求禮 蕨谷寺 玄覺禪師塔碑 (도판 52)

全南求禮郡土旨面內東里

寶物 一五二號 龜趺高一,一二m 螭首高〇,七五m 高麗(九七九

年)

현재 碑身은 缺失되었고, 龜趺와 螭首만이 남아 있다. 龜趺는 긴목에
龍頭化된 龜頭를 갖추었고, 등에는 六角龜甲紋을 덮었다. 龜甲中央에
長方形의 碑座를 마련하였는데, 그 四面에는 眼象과 귀꽃등을 彫出하였
고 입가의 수염등으로 高麗石碑의 形式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螭首
에는 蟠龍이 서서리엄혀 中央의 寶珠를 向하여 서로 다투듯이 되어
寫實性이 強하게 나타났다. 螭首中央의 上端에는 寶珠를 놓았던 받침이
雲紋으로 彫飾되었으나 現在는 缺失되었는바 龜趺의 胴體가 동강이 났
던 것을 固着시켜 놓았다. 字徑은 二,一cm 이고 楷書이다.

金堤 金山寺 慧德王師眞應塔碑 (도판 53)

全北金堤郡金山面金山里

寶物 二四號 高二,七八m 高麗(睿宗 六年 一一一一)

題額은 「贈諡慧德王師眞應之塔碑銘」이며 現在 螭首는 없어지고 碑身
石과 龜趺만이 殘存한다. 龜趺는 方形地臺石과 一石으로 造成되었고,
臺石四面에는 波狀線文이 彫飾되었다. 龜趺의 龜頭는 짧은 목에 龍頭化
되었고, 두귀의 뒷면으로 큰지느러미를 刻出하였고, 턱에는 긴 수염을
나타내었는데, 다른 龜趺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腹部에는 腹甲紋을
나타내고 四足과 몸체에는 비늘무늬로 彫飾하였다. 등은 六角形龜甲紋
으로 장식하고 各龜甲안에는 花文을 넣어 장식하였다. 龜甲의 外周緣에

한줄의 連珠紋帶를 돌렸다. 龜甲中央의 碑座는 重瓣伏蓮座로 낮게 造成
하여 碑身石을 세웠다. 碑身은 龜趺와는 달리 特異하게도 大理石으로
造成되고, 碑身돌레는 唐草紋으로 彫飾하였다. 碑身의 甚한 損傷과 磨
滅로 碑文의 判讀이 곤란하며 撰者와 書者도 알 수 없다.

慧德은 高麗中期의 僧으로 俗姓은 李氏, 諱는 詔顯, 慶源사람이다.
제一〇代 靖宗四年(一〇三八)에 出生하여 一五代 肅宗元년에 五九歲로
入寂하였다.

맺는 말

위에서 본 바를 간략하게 추려서 맺는 말로 삼겠다.

幢竿支柱

高麗時代가 되면, 柱頭는 圓弧를 이루어 羅代와 같이 支柱內面을 除
外한 各面에 縱線紋을 裝飾하여 竿臺와 基壇등을 갖추었으나, 그 紋帶
는 略化되거나 形式化되며, 돌 다듬도 고르지 못하며 鈍重感을免치 못
한다(春川權花洞幢竿支柱等)。

石燈

初期에는 統一新羅期의 八角形樣式을 繼承하였으나 대체로 形態가 鈍
重하고 彫刻手法도 前代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차츰 八角典型樣式을
벗어나 새로운 樣式을 이루하게 된다. 卽 方形을 基本으로 하고, 竿柱
를 圓形으로 하며 그위에 또한 方形인 仰蓮石, 火舍石, 蓋石을 얹은 것
이다(玄化寺址石燈, 灌燭寺石燈等)。

한편 羅代부터의 獅子石燈形도 계승되며(高達寺址雙獅子石燈) 新羅時
代의 雙獅子와는 달리 方形의 下臺石 위에 꾸구리고 앉아 있을 뿐이고 上
臺를 그위의 다른 部材가 받치도록 되어 있어 退化的인 樣相을 보인다.

石碑

羅代에서 建立되었던 塔碑가 高麗에 들어서도 繼承되어 墓碑와 같이 龜
趺나 螭首를 具備한 碑石이 된다. 塔碑는 高僧의 浮屠 앞에 建立되는 것

인데 龜趺와 螭首의 彫刻은 美術史研究에 貴重한 研究資料가 될뿐만 아니라 書體는 金石學研究에 重要な 資料가 되며 碑文의 內容도 史料로서 價値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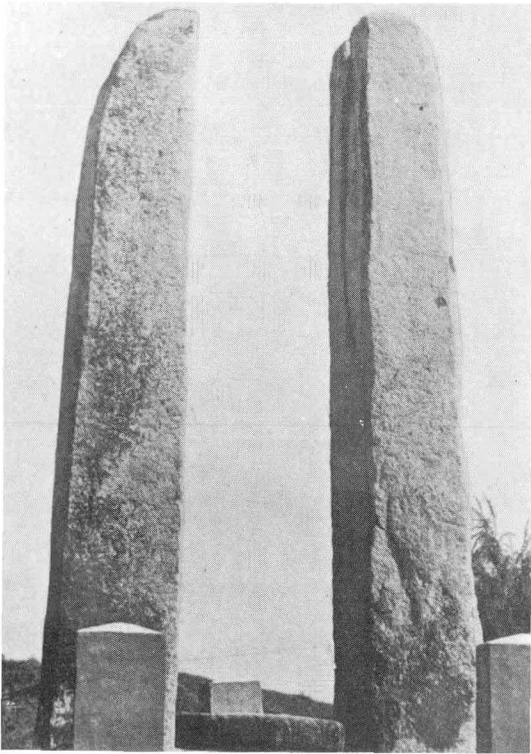
高麗에서는 대체로 基本形式을 維持하면서 部分的으로 變形 또는 退化된다.

高麗中葉이 되면 한편으로 다른 形式이 나타나며, 龜趺 대신에 長方形의 碑座가 생기고 螭首도 長方形의 蓋石으로 된다(僊鳳寺大覺國師碑)。 그리고 蓋石을 생략하고 碑身 上部의 양쪽 모를 죽인 迎日의 寶鏡寺圓眞國師碑와 같은 例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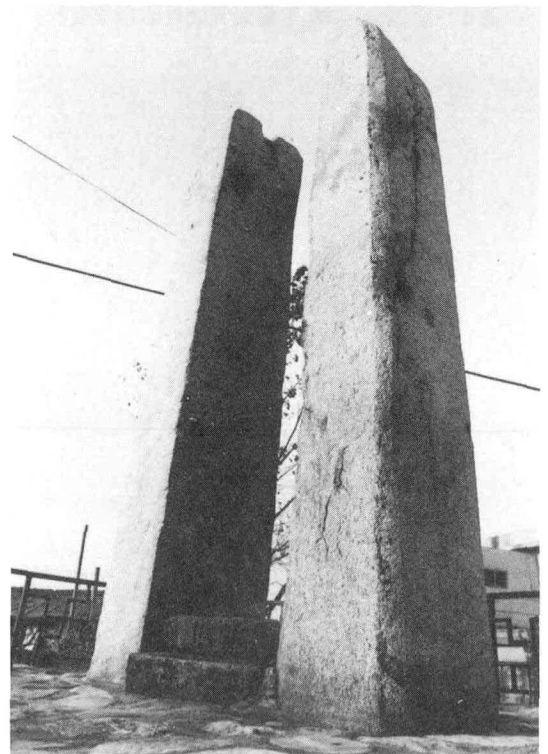
이와 같은 變形된 여러 樣式은 高麗末에 더욱 盛行되다가 다음 朝鮮朝에 들어서 같은 傾向으로 一貫되어 서울 塔洞公園의 圓覺寺碑같은 例를 남기게 된다.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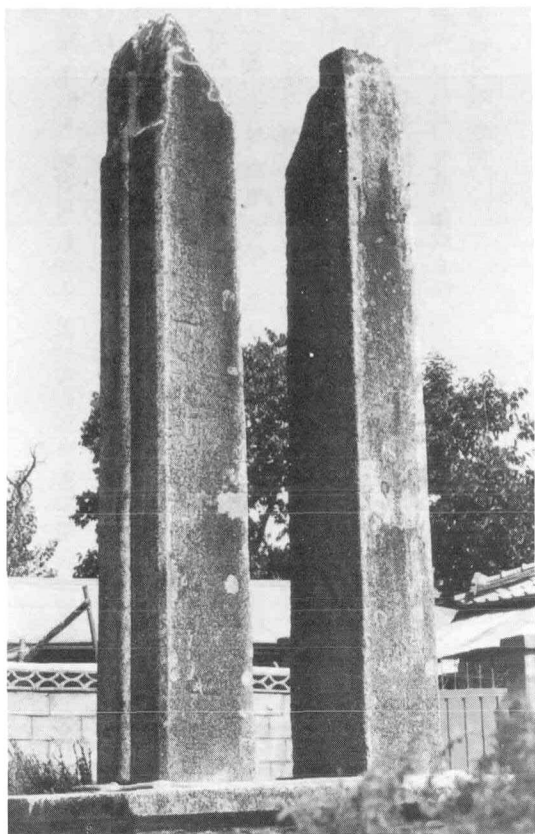
- 문 교 부 : 국보도록 四, 一九六四
- 문화공보부 : 文化財大觀國寶篇 一九六四
- 문화공보부 : 文化財大觀國寶篇(中) 一九六九
- 高 裕 燮 :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一九六三
- 同和出版社 : 韓國美術全集七(石造) 一九七三
- 中央日報 : 韓國의 美 一五(石造) 一九八三
- 季刊美術 : 韓國의 美 一五(石造) 一九八三
- 藝耕出版社 : 國寶七(石造) 一九八四
- 黃 壽 永 : 金石遺文 一九七六
- 李 丙 燾 : 高麗時代의 研究 一九八〇
- 文化財管理局 : 文化財二號 一九六六
- 鄭 明 鎬 : 韓國石燈目錄(考古美術資料 一三輯)
- 鄭 明 鎬 : 韓國石燈樣式의 變遷
- 金 東 賢 : 高麗法泉寺智光國師塔碑殿址調査概要(考古美術資料 一〇輯) 一九六六
- 黃 壽 永 : 益山彌勒寺址의 百濟石燈(考美 三一・一二) 一九六二
- 舊朝鮮總督府 : 朝鮮金石總覽上
- 葛城末治 : 朝鮮金石攷 一九三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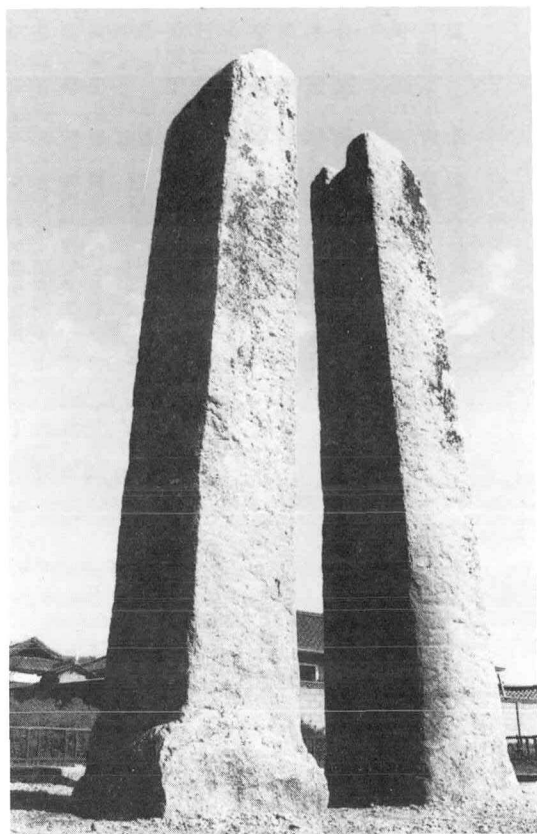
〈圖 2〉江原 春川市 前坪里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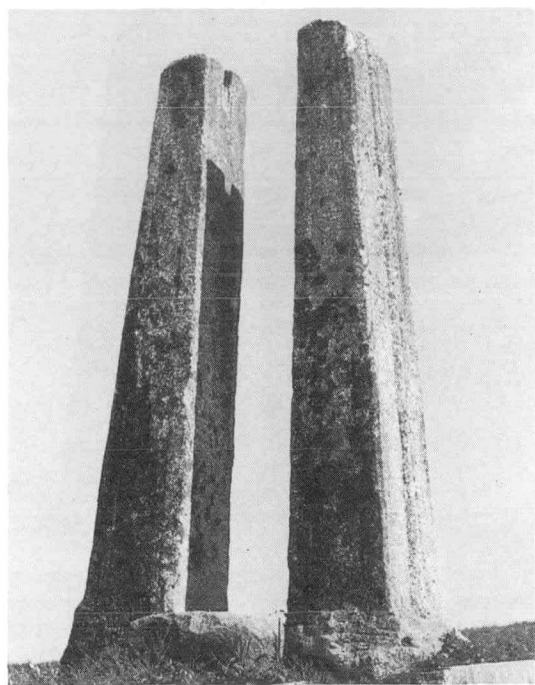
〈圖 1〉江原 春川市 槿花洞 幢竿支柱



〈圖 4〉 忠南 天原郡 聖居面天興寺址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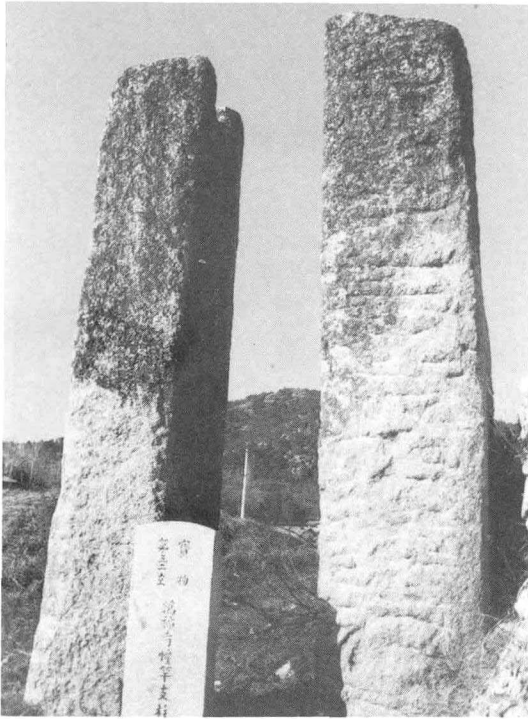
〈圖 3〉 江原 洪川郡 希望里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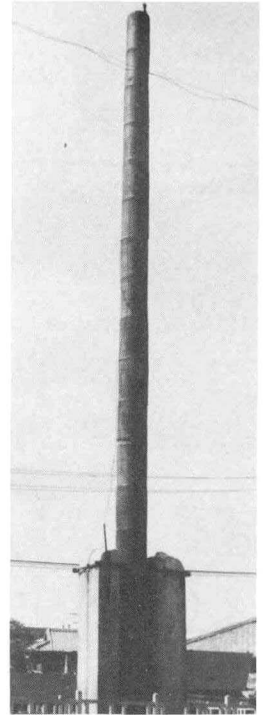
〈圖 6〉 忠南洪城郡 東門洞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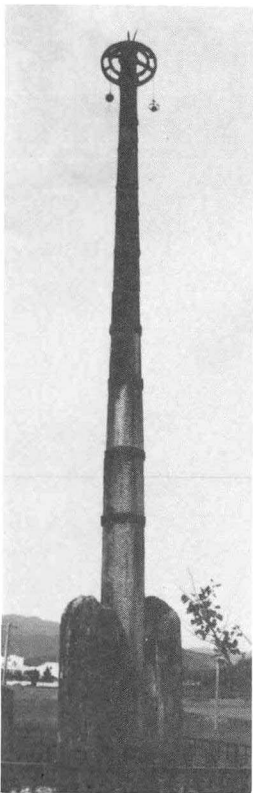
〈圖 5〉 忠南 牙山邑 内里 幢竿支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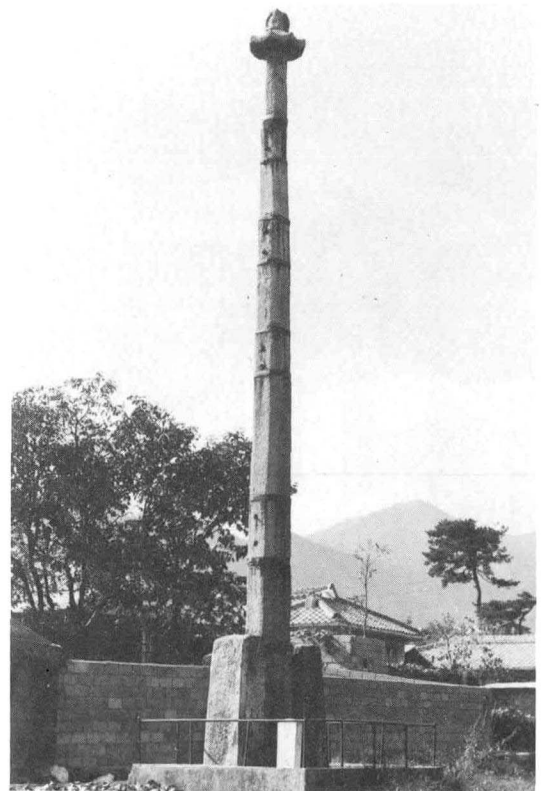
〈圖 8〉全南 南原市 萬福寺址 幢竿支柱



〈圖 7〉忠北 清州市 龍頭寺址 鐵幢竿



〈圖 10〉全南 潭陽邑 内里 石幢竿



〈圖 9〉全南 錦城市 羅州 東門外 石幢竿



〈圖12〉高達寺址 雙獅子石燈(現, 서울 景福宮)



〈圖11〉羅州 西門 石燈(現, 서울 景福宮)



〈圖14〉京畿 驪州郡 北內面 神勒寺 普濟尊者石塔 앞 石燈



〈圖13〉玄化寺址石燈(現, 國立中央博物館)



〈圖16〉忠南 論山郡 恩津面 灌燭寺 石燈



〈圖15〉江原道 華川郡 啓星里 石燈



〈圖17〉全北 沃溝郡 鉢山里 石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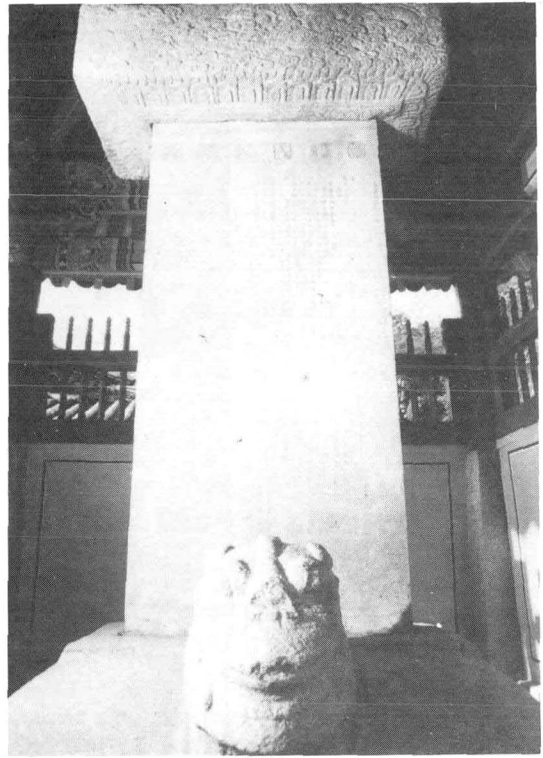
〈圖19〉 菩提寺 大鏡大師塔碑 (現, 서울 景福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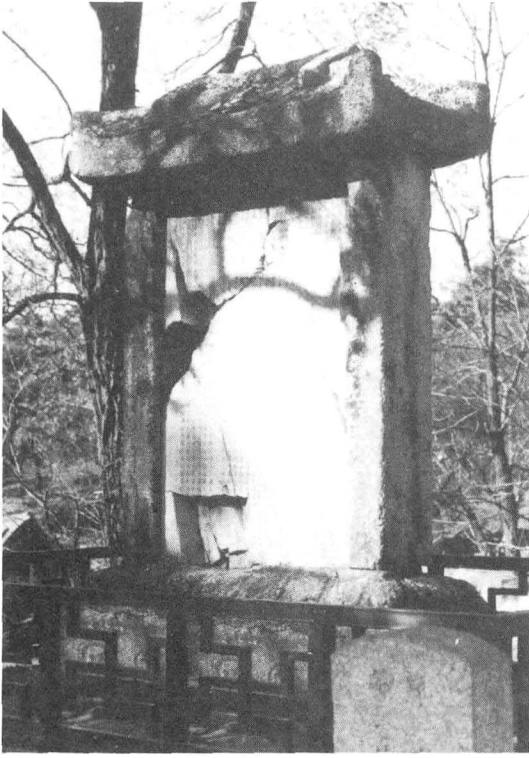
〈圖18〉 淨土寺 弘法國師 實相塔碑 (現, 서울 景福宮)



〈圖21〉 경기 楊州郡 檜泉面 檜巖寺址 禪覺王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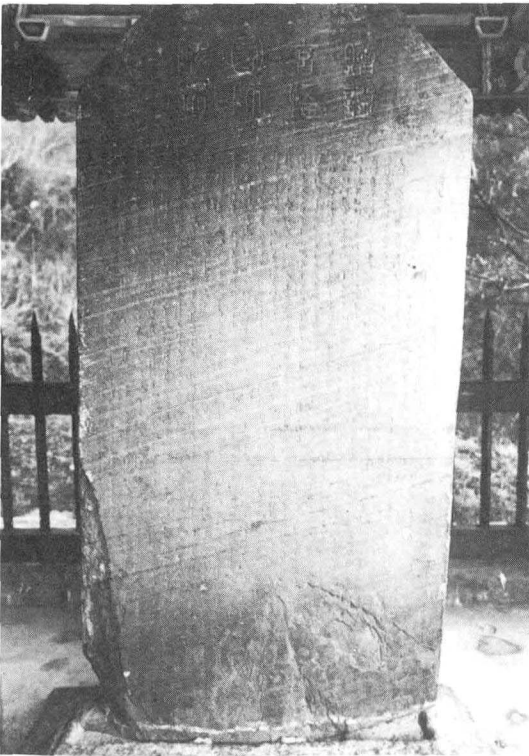
〈圖20〉 京畿 高陽郡 神道邑 太古寺 圓證國師 塔碑



〈圖23〉京畿 麗州郡 北內面 神勒寺 大藏閣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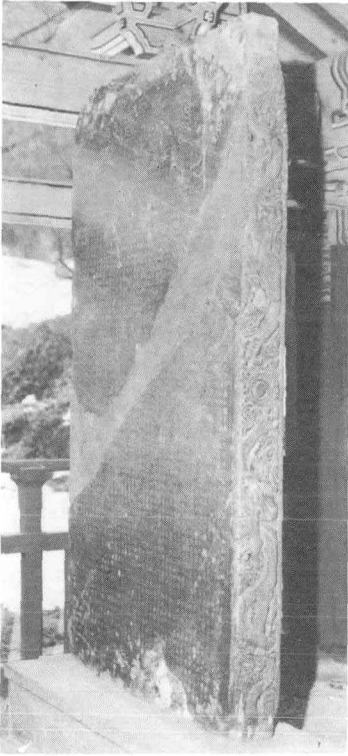
〈圖22〉京畿 麗州郡 北內面 神勒寺 普濟尊者 石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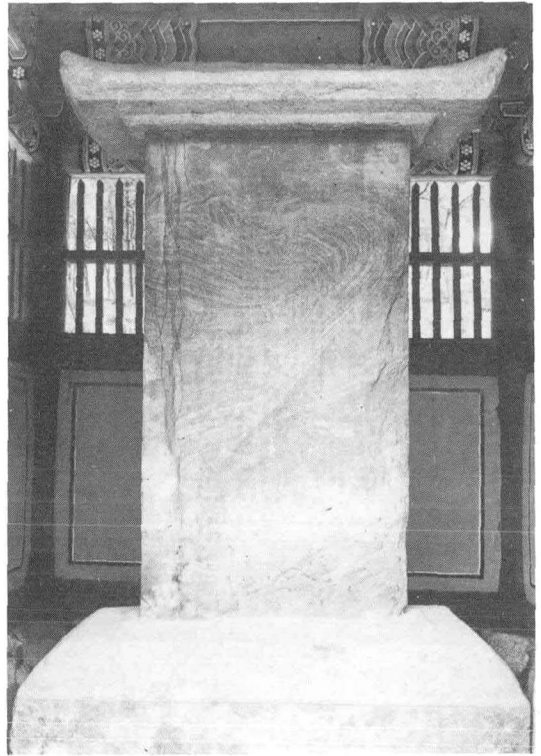
〈圖25〉京畿 龍仁郡.水枝面 瑞峯寺 玄悟國師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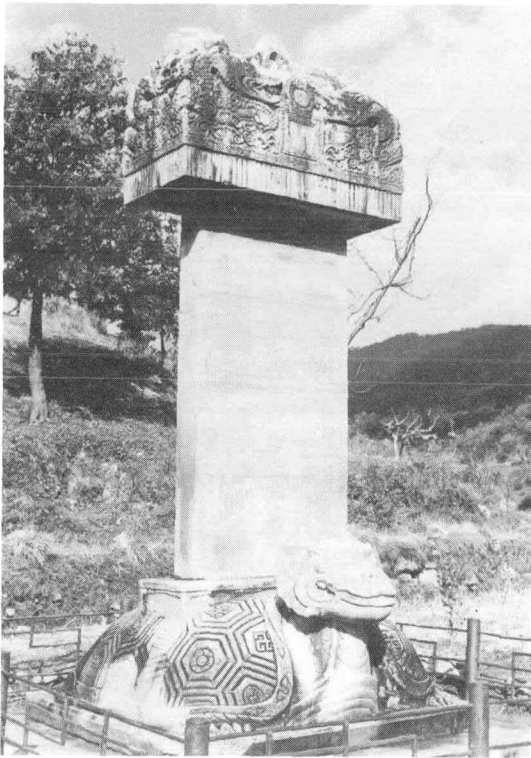
〈圖24〉京畿 驪州郡 北內面 高達寺 元宗大師
慧眞塔碑 龜趺 吳 螭首



〈圖27〉京畿 安城郡 二竹面 七長寺 慧炤國師碑



〈圖26〉京畿 水原市 梅香洞 彰聖寺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



〈圖29〉江原 原城郡 富論面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



〈圖28〉江原 原城郡 富論面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



〈圖31〉江原 溟州郡 城山面 普賢寺 朗圓大師 悟真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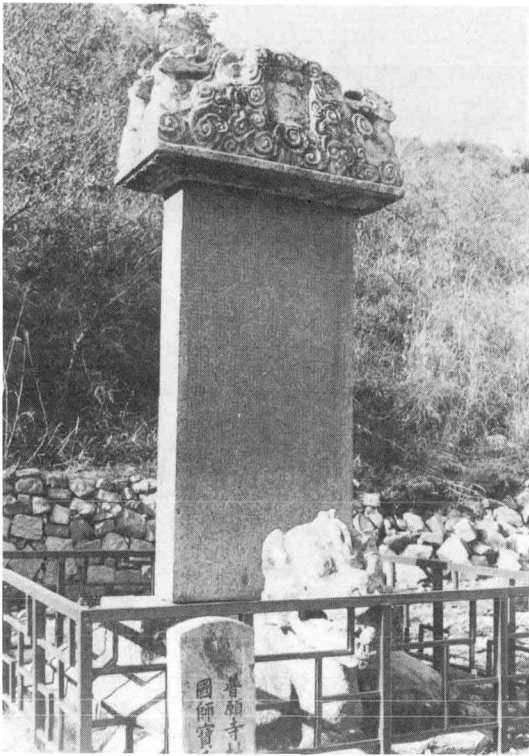
〈圖30〉江原 原城郡 地正面 真空大師 塔碑 龜趺 吳 螭首



〈圖33〉忠南 天原郡 成巖邑 奉先弘慶寺 碑碣



〈圖32〉江原 寧越郡 水周面 興寧寺 澄曉大師 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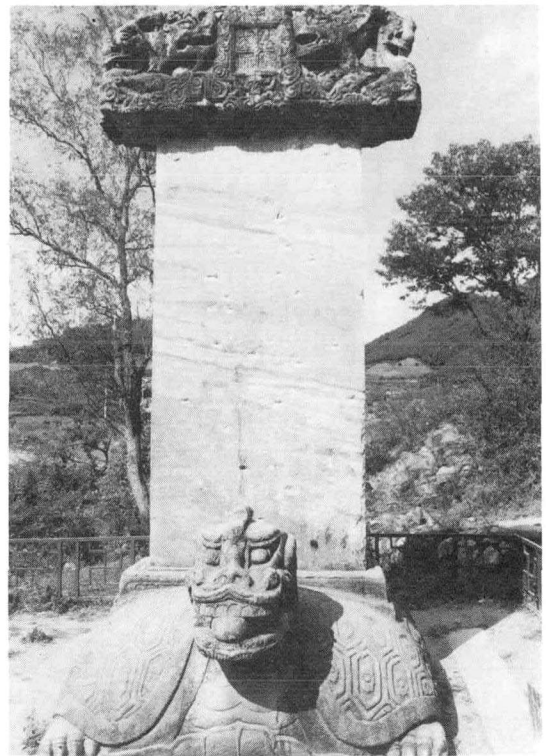
〈圖 35〉 忠南 瑞山郡 雲山面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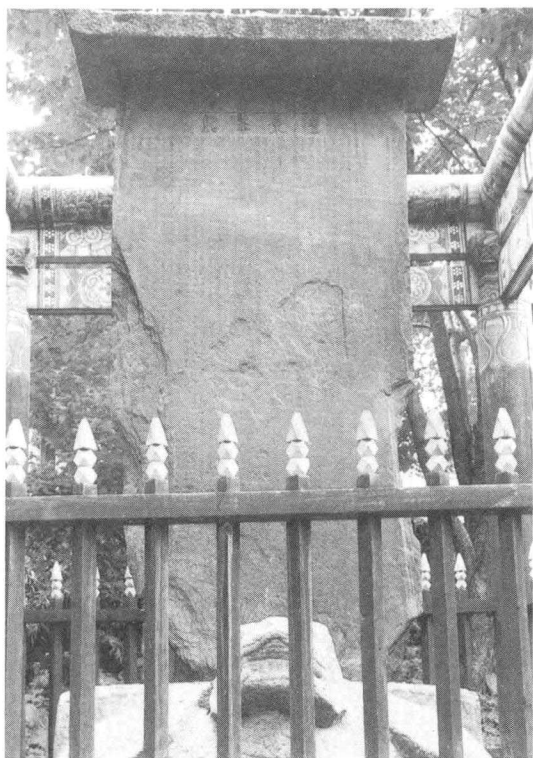
〈圖 34〉 普光寺 重勅碑 (現 忠南 國立扶餘博物館)



〈圖 37〉 忠北 鎮川郡 鎮川邑 蓮谷里 石碑



〈圖 36〉 忠北 中原郡 東良面 淨土寺 法鏡大師 慈燈塔碑



〈圖39〉慶南 陝川 般若寺 元景王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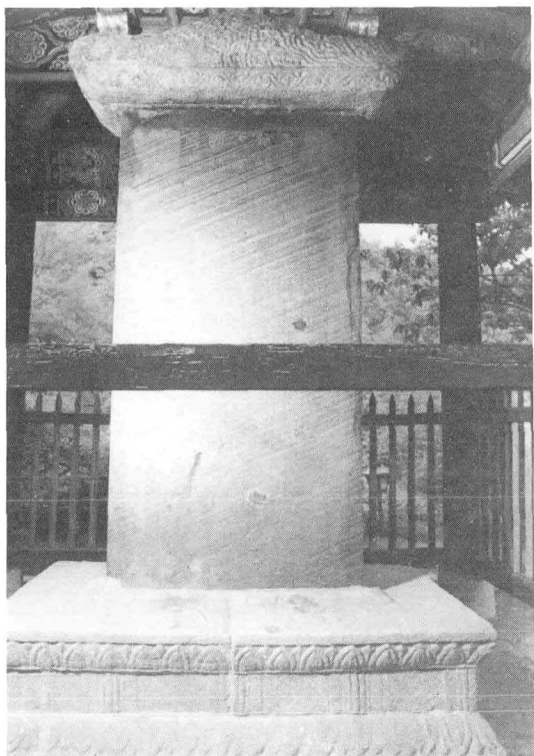
〈圖38〉忠北 永同郡 陽山面 寧國寺 圓覺國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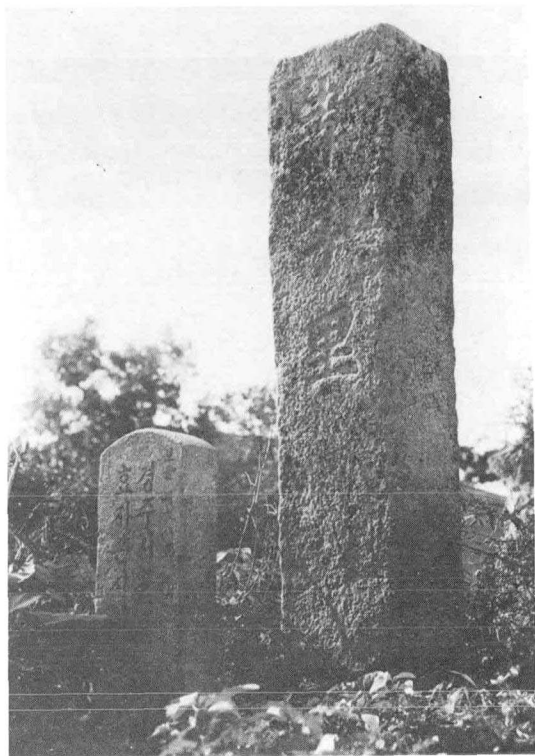
〈圖41〉慶南 泗川郡 昆陽面 埋香碑



〈圖40〉慶南 梁山郡 下北面 通度寺 國長生石標



〈圖43〉慶北 漆谷郡 北三面 僊鳳寺 大覺國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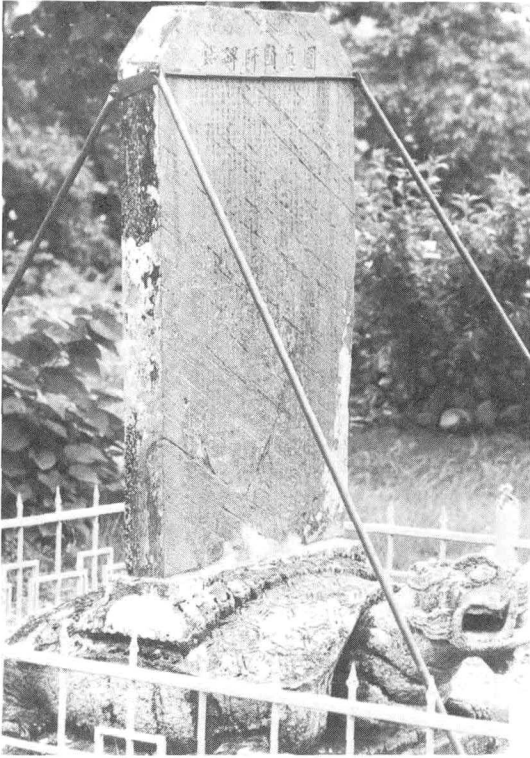
〈圖42〉慶北 慶州市 皇南洞 孝子孫時 楊旌閣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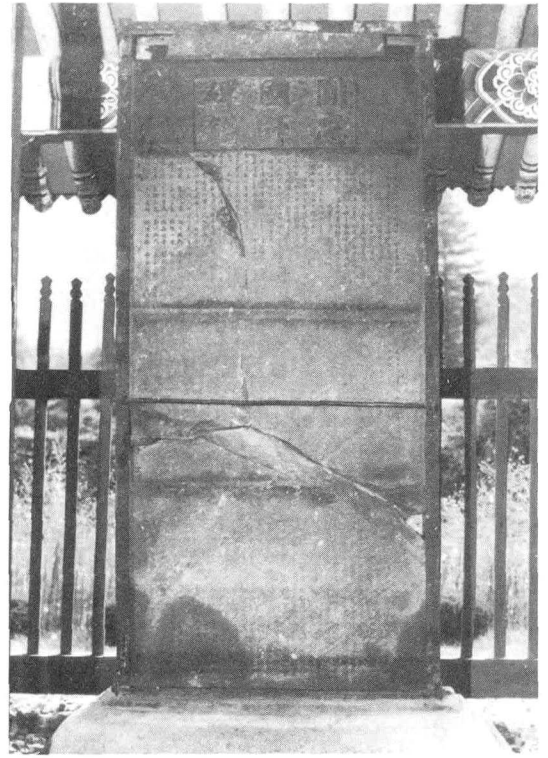
〈圖45〉慶北 軍威郡 古老面 麟角寺 普覺國師碑



〈圖44〉慶北 聞慶郡 加恩邑 鳳巖寺 靜真大師 圓悟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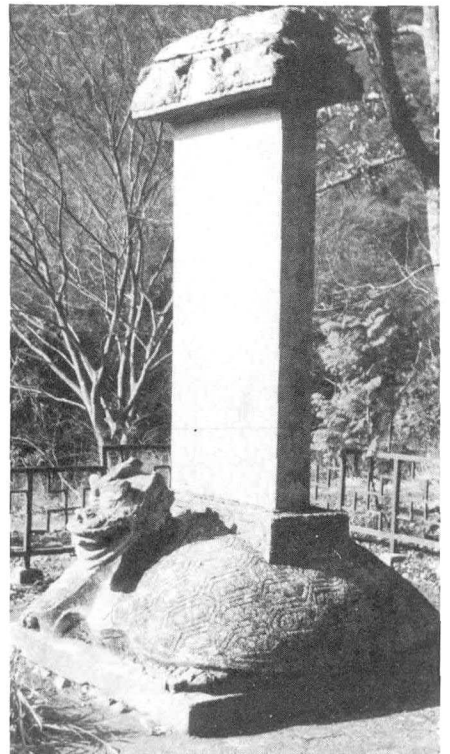
〈圖47〉慶北 迎日郡 松羅面 寶鏡寺 圓眞國師碑



〈圖46〉慶北 清道郡 雲門面 雲門寺 圓應國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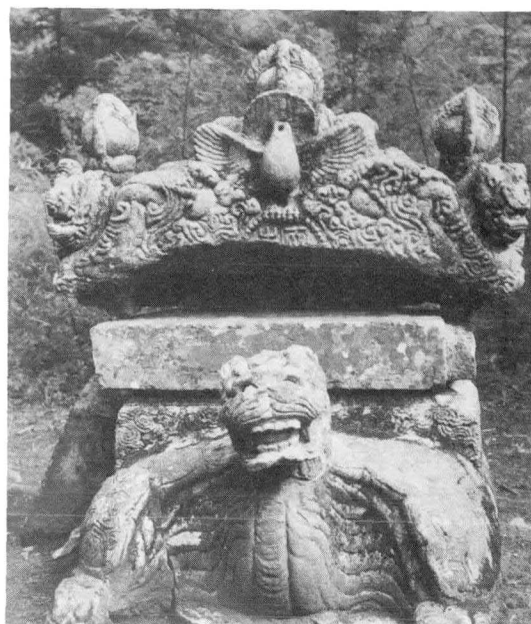
〈圖49〉全南 康津郡 城田面 月南寺址石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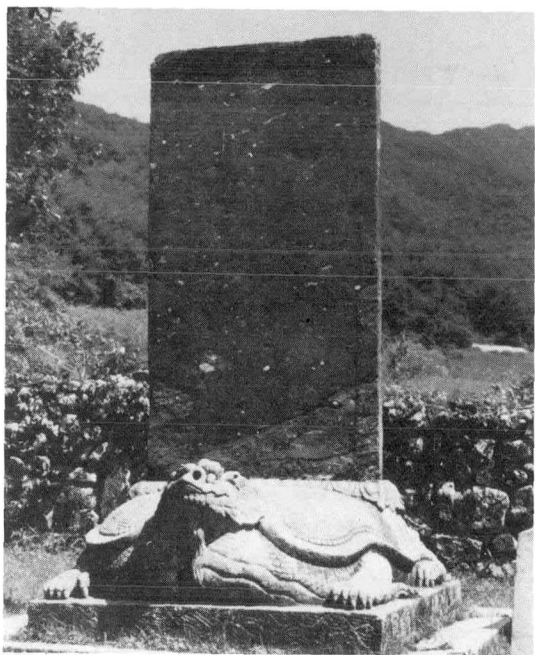
〈圖48〉全南 康津郡 城田面
無爲寺 先覺大師 遍光塔碑



〈圖51〉全南 求禮郡 土旨面 鷺谷寺 東浮屠塔碑



〈圖50〉全南 谷城郡 竹谷面 大安寺 廣慈大師碑



〈圖53〉全北 金堤郡 金山面 金山寺 慧德王師眞應塔碑



〈圖52〉全南 求禮郡 土旨面 鷺谷寺 玄覺禪師塔碑